

한국문학탐방 I

발표 자료집

2012

경상남도 남부지역 (4 월 4 일 - 4 월 7 일)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1. 탐방단 구성 ---3P
2. 일정표 ---4P
3. 발표 장소 및 배정표 ---5P
4. 지도 --- 7P
5. <1 조> 조 식 ---8P
6. <2 조> 변영로 --- 12P
7. <3 조> 김만중 --- 18P
8. <4 조> 박재삼 --- 22P
9. <5 조> 유치환 --- 26P
10. <6 조> 김춘수 ---32P
11. <7 조> 이순신 ---36P
12. <8 조> 박경리--- 40P
13. <9 조> 최인훈--- 46P
14. 구지가--- 50P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단장 : 학과장 **이기인**

조별 지도교수

A 반(1-4 조) : **김명준** 교수

B 반(5-7 조) : **이병기**

C 반(8-10 조) : **신서인** 교수 재정 및 진행기록 담당 : **한소영** 조교

전체진행 : 학생회장(**최선희**), 발표사회 : 답사부장(**채상윤**), 숙식관리 : 부학생회장(**박은지**)

조	탐방대상	조장	1 학년	재 학 생
1	조 식	길창인	곡정아, 공유정, 권순영, 길혜민	(맹승범), (이석원)
2	변영로	김아영	김나라, 김다현, 김두연, 김민주	(윤수지), (윤지영)
3	김만중	진수연	김세훈, 김유미, 김윤경, 김재희, 홍정인	(한혜림)
4	박재삼	이소영	김화영, 남윤주, 노용우, 김기훈	(허은영)
5	유치환	김지예	박은지, 박정현, 백효욱, 변선희	신경립, (노한나)
6	김춘수	(이재혁)	변지선, 손선영, 송은정, 오은영	한유진, (박은서)
7	이순신	(박빛)	원예진, 유동현, 윤지은, 윤희정	이승준, (이영수)
8	박경리	(김태윤)	이다영, 이병호, 이은혜, 이지영	전상호, (하강)
9	최인훈	이용희	임남희, 임종규, 전예름, 정지안	윤준석, (김도윤)
10	구지가	(박영훈)	정희일, 조아람, 홍수민, 박선우	홍원기, (임명철)

<인솔관리 : 최선희, 박은지, 채상윤 숙식관리 협조 : 윤수지> * () : 단순 참가

<배차> 총 78 명

1 호차 : 3 조, 5 조, 6 조, 7 조, 8 조 이기인, 유명희, 한소영, 최선희

2 호차 : 1 조, 2 조, 4 조, 9 조, 10 조 김명준, 이병기, 신서인, 박은지, 채상윤

<준비물>

공동 준비물 : 캠코더, 카메라, 넷북, 지도, 비상약 등

개인 준비물 : 의복, 운동화, 자료집, 필기도구, 학생증, 카메라, 우산, 세면도구 등

<주의사항>

유적 관람 시간 : 발표와 자유관람을 반씩

유적 관람할 때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할 것

일정표

	4 월 4 일 (수)	4 월 5 일 (목)	4 월 6 일 (금)	4 월 7 일 (토)
08	00 연암관 1 층 앞 주차장 집합 30 학교 출발	05:50 상주해수욕장 출발 06:00 보리암 등반 보리암 일출 관망 08:00 조식 : 용오름 (보리암등반일행 8:30)	30 조식 국일관	07:30 조식 식당: 삼계탕집 08:30 통영 출발
09		20 벽련 출발 동진호 30 노도 김만중 유배지 발표 김만중	09:00 통영 터미널 출발 파라다이스호(유성해운) 30 한산도 도착 50 제승당 도착 수루: 발표 이순신	30 김해 도착 40 수로왕비릉, 구지봉 도착 발표 구지가
10		30 노도 출발	10 제승당 출발 30 한산도 출발	20 김해출발
11		00 벽련 출발	00 박경리문학관 발표 박경리	00 영남루 도착
12		10 사천시 노산공원 도착 발표 박재삼 50 중식: 암소식당	00 박경리문학관 출발 30 중식: 국일관	20 영남루 출발 30 중식 : 밀양쭈꾸미
13	00 산청 휴게소 도착 중식 : 휴게소 식당 40 산청 휴게소 출발	30 사천시 출발	10 통영 출발	20 밀양 시내 출발
14	00 산천재 관람 발표 조식 40 덕산서원 자유관 람 55 서원 출발	00 청마문학관 30 남망산 도착 발표 유치환 시비 발표 김춘수 시비	00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도착 (단체 2 천원, 주차 3 천원) 발표 최인훈 <광장>	
15	00 서원 출발 40 진주성 도착 발표 변영로	30 남망산출발 50 숙소도착	30 포로수용소 출발	
16		20 통영시내 도보 관람 통영중앙동우체국,청마거 리, 초정거리,세병관	10 바람의 언덕 도착	
17	10 진주 출발	50 통영 숙소 도착 명성모텔	20 해금강 신선대 관광 40 해금강 출발	
18	35 숙소: 모텔 석식: 용오름	00 석식: 주차장: 여객선터미널	50 김해 숙소 도착 19:00 석식(만찬 및 평가회) 숙소: 힐탑모텔 석식: 삼계탕집	30 춘천도착

발표 장소 및 배정표

한국문학회 <http://www.munhakwan.com/> 경남문학회 munhac.cafe24.com/

1. 조 식(한문학) 남명학연구소 <http://www.nammyung.org/>

산천재: Ⅰ. 조식의 생애, Ⅱ. 조식의 작품 세계, Ⅲ. 조식의 대표작의 이해

2. 변영로(현대시)

진주성: Ⅰ. 변영로의 생애, Ⅱ. 변영로의 작품 세계, Ⅲ. 「논개」와 한용운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의 비교, Ⅳ. 변영로 관련유적

3. 김만중(고소설)

남해 노도: Ⅰ. 김만중의 생애, Ⅱ. 김만중의 작품 세계, Ⅲ. 김만중의 대표작 감상, Ⅳ. 김만중 관련유적

4. 박재삼 (현대시)

사천 노산공원: Ⅰ. 박재삼의 생애, Ⅱ. 박재삼의 작품 세계, Ⅲ. 박재삼 관련유적

5. 유치환(현대시) 청마문학회 literature.tongyeong.go.kr/

남망산 공원: Ⅰ. 유치환의 생애, Ⅱ. 유치환의 작품 세계

통연중앙우체국: Ⅲ. 유치환의 대표작

청마문학회: Ⅳ. 유치환 관련유적

6. 김춘수(현대시)

남망산 공원: Ⅰ. 김춘수의 생애, Ⅱ. 김춘수의 작품 세계, Ⅲ. 김춘수의 대표작, Ⅳ. 김춘수 유적지

7. 이순신(시조) www.e-sunshin.com/

한산도 제승당: Ⅰ. 이순신의 생애, Ⅱ. 이순신의 업적, Ⅲ. 이순신 <난중

일기>, IV.이순신의 작품. V. 이순신 유적지

8. 박경리(현대소설)

박경리 문학관: I. 박경리의 생애, II. 박경리의 작품 세계, III. 박경리의 대표작, IV. 박경리 관련유적

9. 최인훈(현대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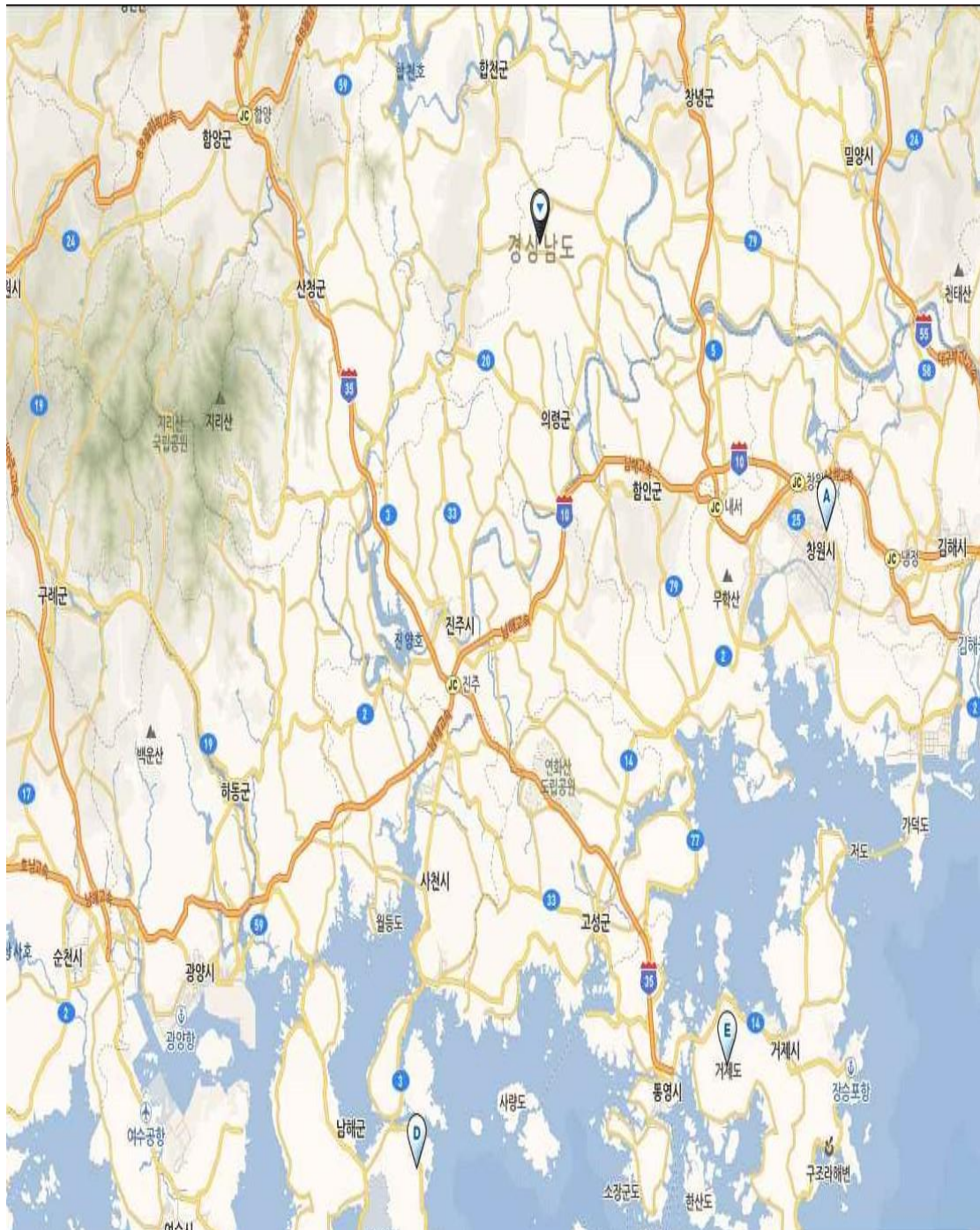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 I. 최인훈의 생애, II. 최인훈의 작품세계 및 저항의식, III. 최인훈의 대표작, IV. 최인훈 관련유적

10. 구지가(고대가요)

구지봉: I. 역사적 측면에서 본 구지가의 배경, II. 구지가에 대한 4가지 해석

지도

-경상남도-



1 조-조식

20111103 길창인
20121101 곡정아
20121102 공유정
20121103 권순영
20121104 길혜민

1. 생애

남명 조식은 조선조 연산군 7년(1501) 6월 26일 경남 함천군 삼가면 토동에서 태어났다.
5세 때까지 외가에서 자라던 선생은 아버지가 장원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르자 서울로 이사해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다.

20세 때 남명은 생원, 진사에 1,2등으로 급제하였으며, 그의 나이 25세 때 일어난 기묘사화때는 조광조가 죽고 숙부인 언경가(彦慶家)가 멸문의 화를 입자 학문적, 정신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였다. 방황 하던 남명은 산사에 가서 성리대전을 읽다가 허노재가 말한 ‘이윤(伊尹)의 뜻을 뜻으로 하고 안연(顔淵)의 학(學)을 학(學)으로 하여, 벼슬에 나가면 유익(有益)한 일을 하고, 야(野)에 처(處)해서는 지조(志操)를 지킨다. 대장부(大丈夫)라면 마땅히 같아야 할 것이니, 벼슬에 나아가서도 하는 일이 없고, 산림(山林)에 처(處)해서 지킨 것이 없으면 뜻한 것, 배운 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라는 구절을 보고 깨달은바 있어 다시 학문에 전념하였다.

26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고향인 삼가에 장사지내고 3년 여막생활을 살았으며, 가난과 싸우면서 민생들의 고초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30세 때 처가가 있는 김해로 이사하여 거기에 ‘산해정’을 짓고 공부에 전념하여 학문과 인격을 닦았다.

48세 때엔, 18년간 학문기반을 닦던 김해를 떠나 다시 고향인 토동으로 돌아와 계부당과 뇌룡사를 짓고 후진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처사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권에 대항해 잘못된 국정을 비판했다.

61세가 되자 마지막 도장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는 덕산의 사륜동에 ‘산천재’를 짓고, 자신의 학문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많은 영재들을 모아 가르쳤다.

66세에 징사가 되어 왕과 독대하여 서울외의 지방을 다스려야함과 학문배움의 중요성을 말했다. 선조가 등극하여 여러 번 소명했으나 나아가지는 않고 글로서 도움을 주었다.

72세가 되던 해 2월 8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륜동에서 조용히 운명했다.

출처: 오이환, 『남명조식(한국의사상가 10인)』, 예문서원, 2002.12.18

2. 작품 세계

조식의 작품은 수권에 불과하다. 『학기유편』과 약간의 시문을 남겼을 뿐이다. 이처럼 조식은 학술적 저술이나 말보다는 직접 몸소 행하는 실천에 중점을 둔 유학자였다.

그는 상대가 자신보다 높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직접적인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명종을 “고아”, 문정왕후를 “과부”라고 비판한 『을묘사직소』에 잘 드러난다. 또한 백성을 물에 비유하고 임금을 배에 비유해, 물이 사나우면 배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민암부』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조식은 국정이 잘못 되었다면 가차 없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조식은 체험과 심득을 중시하여 항상 말로만 떠드는 언행을 경계코자 하였다. 남명 조식의 정신은 ‘스스로의 수련’과 ‘의로운 행동’이다.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수련 하면서 내면을 굳게 하고, 의롭고 바른 행동을 하면서 외면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가 “실천 정신”을 밑거름 삼아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자 하였다. 그는 그의 일생동안 의롭게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이처럼 남명이 스스로 행동 하는 삶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의 글은 단순히 성리학적 차원이 아니다. 현실적, 실용적 학문세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학문은 어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여 보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몰라서는 안된다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율력, 형법, 천문, 지리, 군사, 관직 등 소외되어 있던 부분의 문제까지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남명은 항상 포괄적 학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이러한 자세가 산림에서 일생을 보냈음에도 사회에 대한 끊임 없는 참여와 비판 정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남명 조식의 생각은 고스란히 상소문 같은 작품으로 흡수 되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깊이 배어있다.

< 참조 >

강동욱, 『남명의 숨결』, (주)나남출판, 2003.8.11

유명종, 『남명 조식의 학문과 사상』, 세종출판사, 2001.12.25

예문동양사상연구원°오이환, 『한국의 사상가 10인』, 예문서원, 2002.12.20

3. 대표작의 이해

① 남명집

조식은 유학자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실학적 학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 전기 실천적 학풍과 조선 후기 현실을 중시하는 학풍을 이어주는 고리역할을 했다. 조식은 벼슬에 나아갈 때와 나아가지 말아야 할 시기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역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를 강조하였다. 또한 자신은 한평생 열 차례 이상 조정으로부터 벼슬을 받았지만, 한 번도 취임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저작된 『남명집』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 간에 주요한 내용의 변화도 있다. 이들은 선조 37년 이후에 간행된 판본을 수정하고 보완한 갑진본 계통, 인조반정 이후 갑진본 계통에 반영된 대북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자 한 이정보 계통, 이정보 계통 판본을 보다 철저히 개정하여 『남명집』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한 중간본 계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남명집』은 정인홍의 주도로 선조 35년 함천 해인사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초간본은 별로 보급되지 못한 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갑진본은 초간본을 바탕으로 새로 간행한 것이다. 이 둘은 모두 3권 2책의 분량으로 되어 있었다. 조식의 문집 분량이 이처럼 적은 것은 저술 행위를 경계했던 학문적 입장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식이 죽은 후 남은 원고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문집에 수록된 것은 후학들의 기억 속에 남아 전해온 것이거나 여기저기서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계속적인 작품의 추가와 교정이 가해지고, 불완전한 작품이나 타인의 작품이 잘못 끼어든 사례가 있다. 남명집에 수록된 작품은 「대곡에게 부치다」, 「칼자루에 적어 장원한 조원에게 줌」, 「우연히 읊음」, 「산해정에서 주경유에 차운하여」, 「구암사에 부침」 등이 있다. 아래의 작품은 「대곡에게 부치다」라는 작품이다.

<대곡에게 부치다>

만첩 깊은 산속에 풀이 문을 덮었고
땅벌이 길에다 새끼를 쳤지.
갑자기 어험 소리 듣고 놀랐으니 어찌 진정하랴
늙은이 눈물 흘리며 마주보다가 한참 뒤에야 말했지.
형제도 버리고 떠났으니 갈 곳이 없는데다
벗들도 쇠잔했으니 누가 살아남았나.
겨울 석 달 동안 붙어서 먹고 지내던 일
그때엔 다 잊어버리고 말하지 않았었지.

출처 : 지식을만드는지식 <http://zmanzclassics.blogspot.com/>

②산천재

산천재(山天齋)는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 남명 조식선생이 거처하였던 곳이며, 1561년(명종 16)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조식선생이 61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은 곳이기도 하다. 조식선생은 이곳에서 국왕에게 세 차례 글을 올려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건의했었다고 한다. 현재는 본당 건물인 산천재와 사랑채, 작은 서고가 하나 있다.

산천(山川)이란 동양에서 가장 난해한 책으로 꼽히는 유교경전 《주역》의 64괘 중 대추괘를 나타낸다. 그 뜻은 “굳세고 독실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천재는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



였다는 점과, 벽화가 있다는 점이 여느 서원이나 서재에서 보기 힘든 특이하고 장엄한 건물이다.

산천재 정면에는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를 뜻하는 편액이 걸려있다. 편액 위에는 신선들이 소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그린 ‘상산사호도’가 그려져 있다. ‘상산사호도’는 산수화로 평생을 산림처사로 고고하게 살았던 남명 선생의 삶과 닮은 그림이다.

또한, 이곳에는 선생의 문집이 보관되어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선생의 문집들이 지역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남명학 연구는 물론 지역사 연구에도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산청 조식 유적 [山淸 曹植 遺蹟] | 네이버 백과사전 + 다음 개인 블로그 자료
(<http://blog.daum.net/leeke2000/16507386>)

2 조- 변영로

20081110 김정은
20111109 김아영
20121105 김나라
20121106 김다현
20121107 김두연
20121108 김민주

1. 생애



변영로: 1898~1961. 시인·영문학자.

서울 출신. 아호는 수주(樹州). 정상(鼎相)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진주 강씨(晉州姜氏)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 서울 재동·계동 보통학교를 거쳐 1910년 사립 중앙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2년 체육교사와 마찰이 일어 자퇴하고 만주 안동현을 유람하다가 같은 해 평창이씨(平昌李氏) 흥순(興順)과 결혼하였다. 1915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영어반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쳤다.

그 뒤 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산호세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및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교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1919년에는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일도 있다. 1920년에 《폐허(廢墟)》, 1921년에는 《장미촌(薔薇村)》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신민공론 新民公論》 주필을 지내기도 하였다. 1923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로 부임하였다.

그의 시작 활동은 1918년 《청춘 靑春》에 영시 「코스모스 Cosmos」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천재시인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1921년 《폐허》 제2호에 평문 「메텔링크와 예이츠의 신비사상」, 《신천지 新天地》에 논문 「종교의 오의(奧義)」, 시 「꿈많은 나에게」·「나의 꿈은」 등 5편을 발표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1922년에는 《신생활 新生活》에 대표작

「논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는 창작 활동 초기부터 과작(寡作)의 시인이었다.

《신생활》·《동명》·《개벽 開闢》 등을 통하여 한 해에 5, 6편 정도를 발표하였을 뿐이다. 1924년에는 첫 시집 《조선의 마음》이 평문관(平文館)에서 간행되었는데 거기에는 「버러지도 싫다하울 이몸이」를 비롯한 28편의 시와 수상 8편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시화집은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발행과 동시에 곧 총독부에 의하여 압수되어 폐기처분된 바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두만강 상류를 끼고 가며』 『정계비(定界碑)』 『논개』 등이 있다. 수필로는 『명정사십년(醞酐四十年)』(1953)·『수주시문선(樹州詩文選)』

(1959)· 영문시집 『진달래동산(Grove of Azalea)』(1948) 및 1981년 유족들이 간행한 『수주변영로문선집(樹州卞榮魯文選集)』 등이 있다.

2. 작품세계

그의 시인으로서의 활동은 1918년 《청춘》에 영시 「코스모스 Cosmos」를 발표하면서 시작하였으며 1920년 《폐허》의 동인으로 데뷔하였다. 본격적으로는 《폐허》 제2호와 《개벽》지를 통해서 시와 수필 등 다양한 갈래의 글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2년에 그의 대표작인 「논개」가 발표되었다.

그의 시세계는 크게 3기로 분류되며 1기는 시집 『조선의 마음』이 발간되기까지이다. 그리고 민족시인의식이 가장 많이 표출된 시기이다. 『조선의 마음』은 일제하의 민족적 울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시들은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강하다. 이때의 대표작인 「논개」에서도 이러한 그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거룩한 분노는 /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웠던 그 아미 /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 죽음을 입맞추었네!

「논개」 중에서

‘거룩한 분노’는 왜에 대한 민족적 분노, ‘불붙는 정열’은 강한 조국애로 해석된다. 또한 물결 위에 흐르는 마음은 역사 속의 논개의 조국에 대한 충정으로 본다. 이처럼 변영로는 ‘논개’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사회와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2기는 광복까지의 시기이며, 일제강점기의 상황 속에서의 절망과 선비로서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려는 태도가 작품에 드러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은 「실제」와 「사벽송」이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인 「실제」의 내용 중에 ‘꿈과 외로움의 두 틈 사이 잠자코 말없이 살으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광복이라는 꿈과 현실의 외로움 사이에서 절망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다.

3기는 광복부터 죽을 때까지인데 「뉘는 되었건만」과 같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국적 시를 주로 썼다. 작가는 광복 후 여러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며 교육에 힘써왔다. 그의 직업이 이 시기의 시 창작활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그가 활동한 시기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그의 시들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시에서는 가락이 부드럽고 말씨가 정서적인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난다.

생시에 못 뵈올 입을 / 꿈에나 뵈까 하여

꿈 가는 푸른 고개 넘기는 넘었으나

꿈조차 흔들리우고 흔들리어 / 그립던 그대 가까울 듯 멀어라

「생시에 못 뵈올 입을」 中에서

이처럼 「생시에 못 뵈올 입을」이나 「봄비」 등의 시 등을 살펴보면 그 민족주의적인 시인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그리고 시에서 입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간접하고 애뜻하게 표현하였다.

3. 「논개」와 한용운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의 비교

<논개>

변영로

거룩한 분노(憤怒)는

종교(宗教)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중략>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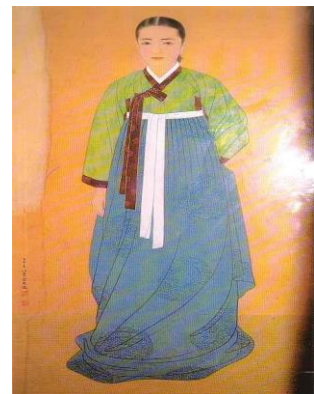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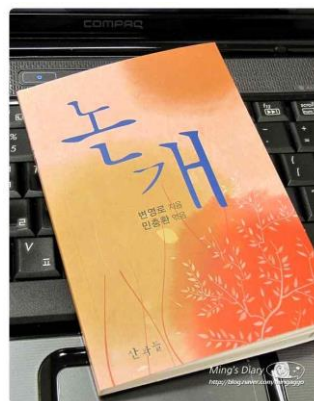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변영로 시집 「논개」

논개 전신화

위 시는 1923 년에 《신생활》 3 호에 등재된 수주(樹州) 변영로 시인의 대표작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축석루에서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안고 남강에 뛰어내려 순국한 의로운 기생 논개의 우국충절을 기리는 시이다.

변영로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에 민족적 패배감에 젖어있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민족적 정기를 고취시키고자 하였고,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를 선명하게 대비시켜 논개의 정열을 더욱 확고하게 부각시켰으며 시의 마지막 구절은 남강이 흐르는 한 논개의 충절도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

한용운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축석루는
살 깊은 광음을 따라서 달음질 칩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여.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중략>

천추에 죽지 않는 논개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는 웃음에 겨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워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논개여!

위 시는 1926년 간행된 만해(萬海) 한용운 선생의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시로, 민족의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바친 논개의 애국적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드높임으로써 조국 독립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직접적으로 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 논개의 민족혼과 조국애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빼앗긴 조국과 역사를 되찾으려는 굳은 신념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한용운 선생은 논개를 예찬하면서도 자신의 실천의지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 시는 『님의 침묵』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에서도 선생의 충의사상과 애국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4. 유적



논개사당과 논개영정



의암(義岩)바위

①논개사당

전라도 장수읍 남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논개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의암사(義岩祀)라고도 한다.

의암사의 구조는 삼문 안의 안마당과 중문으로 막은 사당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층을 이룬다. 삼문 좌우로 사당채 뒤까지 담을 두르고, 중문 좌우에서 역시 담을 둘러 영역을 확연히 구분하였다. 조성은 안마당 영역을 지면보다 한층 높게 마련하였으며, 사당 영역은 안마당에서 다시 층계를 오른 후 중문을 통해 들어가게 하였다. 묘당은 정면 3 칸, 측면 2 칸의 팔작집이다. 의암사 사당의 현판은 1995년 함태영선생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친필 사액한 것이다. 논개영정은 이당 김은호가 그린 논개영정이 봉안되어 있었지만 고증결과 복식과 머리모양이 당대와 맞지 않아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석천 윤여환교수의 논개영정(국가표준영정 제 79 호로 지정)으로 교체되었다.

②의암

논개가 왜장 게야무라 로구스케를 끌어안고 뛰어내린 바위다. 임진왜란 전에는 위험한 바위라 하여 위암(危巖)으로 불렸다. 후에는 논개의 순국정신을 헌창하기 위해 영남사람들이 의암이라고 명명하였다.

1629년(인조 7) 정대룡(鄭大隆)이 바위의 서쪽 벽면에 의암이라는 글자를 전각하였고, 남쪽에는 한몽삼(韓夢參 : 1598~1662)이 쓴 것으로 전하는 의암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의암의 바닥 넓이는 3.65m×3.3m 이다. 옆의 암벽에는 “한 줄기 긴 강이 띠를 두르고, 의열은 천년의 세월을 흐르리라(일대장강(一帶長江) 천추의열(千秋義烈))”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의암은 의기암(義妓巖)의 약칭이다. 옆의 암벽에는 “한 줄기 긴 강이 띠를 두르고, 의열은 천년의 세월을 흐르리라(일대장강(一帶長江) 천추의열(千秋義烈))”는 글이 새겨져 있다. 2001년 9월 27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 235 호로 지정되었다.



진주 축석루의 팔각지붕



수주 변영로 기념비

③축석루

이 누각은 진주성 남단 강 쪽에 임한 벼랑 위에 자리 잡은 건물로 정면 5 칸 측면 4 칸의 단층 팔작지붕형태의 와가(瓦家)이다. 전쟁 때는 주장이(主將) 병졸을 지휘하던 지휘소로 쓰

였고 평소에는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고려 초 고종 28년(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1190~1266)가 창건한 이후 지금까지 7 차례에 걸쳐 중건 중수를 하였다.

축석루라는 이름은 진주성의 옛 이름인 진주 읍성, 축석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축석루는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확실한 역사적 기록으로는 고려 말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며 진주성을 쌓을 때에 그 성의 동서남북에 누대 네 채를 만들었는데 남쪽에 세운 남장대가 바로 축석루가 된 것이다.

그 후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 10년(1618)에 병사 남이흥이 전보다 웅장한 건물로 중건하여 1948년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1950년 6.25 동란으로 불탔다. 지금 건물은 1960년 진주 고적 보존회가 시민의 성금으로 중건하였다.

현재 축석루는 경남 진주시 본성동에 남강가 바위 벼랑 위에 장엄하게 높이 솟아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임을 자랑한다. 축석루 뒷뜰에 있는 논개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 의 기사와 축석루 밑에 있는 의암바위, 논개 시비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논개시비를 장수 논개 사당, 제주 애월읍 조각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④묘역

변영로의 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가족 묘장의 형태로 있으며, 밀양 변씨(密陽卍氏) 묘역에 있는 묘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는 2004년에 조성된 고리울 가로공원이 있어 쉽게 묘역에 진입할 수 있다.

변영로는 형제 영만·영태와 더불어 '한국의 변'이라 불리며 형제의 묘와 나란히 있는 봉분 앞에는 2개의 묘비와 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 등의 석물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수주 변영로 선생기념비'라고 음각된 기념비 앞면에는 변영로의 시 〈생시에 못 뵈을 임을〉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이희승이 찬한 글이 새겨져 있다.

변영로 묘역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사대부의 묘제 양식을 잘 보여주므로 조선시대 묘제 변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념비, 묘역 이외에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26번지에 가면 수주 변영로 기념상도 만나 볼 수 있다.

5.참고문헌

변영로, 樹州 변영로 詩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한용운, 萬海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삼중당, 1975

송옥, 님의 침묵 시편 해설, 일조각, 1974.

최진희, 현대시의 모든 것, 꿈을담는틀, 2007.

민충환, 수주 변영로 詩전집, 부천문화원 향토연구소, 2010.

3 조-김만중

20101139 진수연
20121109 김세훈
20121110 김유미
20121111 김윤경
20121112 김재희
20121141 홍정인

1. 생애

김만중(1637~1692)은 17 세기 조선이 낳은 탁월한 소설가이다.

김만중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내고 판서를 했고 사후에 시호를 문효공이라 하였다.

김만중의 집안은 역대 상류 양반 가문이었다. 비록 유복자로 태어난 만중이지만 그의 어머니 윤씨는 그를 남부럽지 않게 자상하고 엄격히 키웠다. 또한 소학, 당률, 사략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학업에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해주었다. 훗날 그가 학업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훌륭한 학자, 이름 높은 작가로 거듭나는 데에 큰 힘을 보탰다.

김만중은 1665 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곧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서인 노론파로서 치열한 당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양살이로 많은 나날들을 보냈다. 결국 상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떠난 유배지 남해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만중은 특히 국문학에 대하여 남다른 깊은 관심과 조예를 갖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유명한 수필집 서포만필에서 국문학에 대한 선진적인 견해들을 피력하였다. 또한 김만중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양반사대부들의 모방, 답습으로 만들어진 시와 소설을 비판하는 등 그릇된 사상과 맞서 싸웠다.

국문학에 대한 김만중의 생각은 올바르면서도 진보적이었다. 훌륭한 나라의 말을 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 시문을 쓴다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어느 나라 문학이든 그 나라의 모국어에 기초하여야 한다하여 그는 사씨남정기와 같은 국문소설을 많이 남겼다.

그는 소설문학에 대해서도 소설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짓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소설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김만중의 저술로는 한시문집인 서포집과 수필, 비평문들을 모은 서포만필 등이 있다.

소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는 그의 대표작으로 문학사에 남아있지만 국문시가는 현존한 것이 없다. 서포행장에 ‘악부가곡에 능하여 무산곡, 연연곡, 조첩곡 등의 가곡을 편곡하고 채상행(採桑行), 비파행(琵琶行), 두견제(杜鵑啼), 왕소군(王昭君) 등 수많은 가사를 지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김만중은 소설 창작에서 당시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인물의 성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폭넓은 묘사에 기초해서 당시 사회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실주의적 소설 사씨남정기와 낭만주의적 소설 구운몽을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구운몽은 교종기라는 작품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유달리 깊은 김만중이 유배

지에서 어머니의 시름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만중의 소설작품들은 우수한 예술적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작가는 봉건적 유교사상과 불교적 관념론을 적지 않게 설교하여 시대적 제약과 작가 자신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2. 작품 세계

김만중은 전쟁 중 배 위에서 태어나 이름이 '선생'으로 지어졌다. 김만중의 경우 그 자신의 기구하고도 충격적인 탄생 체험이 무의식 속에서 문학적 상상력으로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김만중은 어느 나라 문학이든 그 나라의 모국어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진보적인 성격의 문학가였고 국문의 아름다움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는 한국인은 한국어를 써야 한다는 '국민문학론'을 앞세워 폭넓은 지식과 감성으로 작품 활동에 임하였다.

소설문학에 대해서 소설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이유 때문에 소설을 짓는다고 말하였다. 그저 역사책을 읽어 주는 것보다 삼국지의 관우, 장비 등의 인물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읽어주는 것이 생동감이나 흥미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했다.

『구운몽』은 김만중이 귀양살이 할 적에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룻밤 만에 쓴 소설이다. 『구운몽』에는 김만중의 모성 복합 심리가 깔려 있는데 그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은 어머니가 그에게 끼친 영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성 복합 심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분은 소설 속 양소유가 여덟 처자들을 타고난 시재로 함락시키는 부분이다. 어머니 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김만중은 소설 창작에서 당시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인물의 성격과 인간 관계에 대한 폭넓은 묘사에 기초하여 당시 사회현실을 보다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구운몽』에는 입신양명 부귀공명 등 당시 양반 사회의 이상적 인생관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신선 사상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불교적 사상이다. 『구운몽』의 핵심적인 주제 '인생무상'을 이르고 있다.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황후를 폐하고 장 씨를 왕비로 맞는 것을 반대하다가, 임금의 잘못된 처사를 말리기 위한 직접적인 작품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김만중은 조선시대 전반적인 봉건 양반가정에서의 모순과 갈등을 일반화하면서 가정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축첩제도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지배계급 내부의 부패상을 폭넓게 비판하였다.

3. 대표작 감상

① 구운몽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이 육관대사 대신 용왕에게 가게 되고 용왕이 성진에게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와 수작을 하였는데 육관대사가 이를 알아채고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세계로 추방시키게 된다. 성진은 인간세계에서 양소유로 환생하여 삶을 살아가게 된다. 팔선녀도 인간세계에서 환생을 하게 된다. 양소유는 인간세계에서의 삶에서 승상의 자리에까지 앉는가하면 환생한 팔선녀와 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 후 버

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여생을 즐기려 했던 양소유는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고 불도에 귀의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 그 후 한 노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승은 육관대사였다. 노승과 양소유는 문답을 주고받다가 노승이 석장으로 난간을 두드렸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게 된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삶이 하룻밤 꿈이었다는 걸 깨닫고 육관대사에게 달려가 죄를 뉘우치고 불도 닦을 것을 맹세하게 된다. 팔선녀도 찾아와 머리를 자르고 육관대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기로 한다. 그 후 성진은 깊이 보살의 대도를 터득하여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이 지은 소설로 『금오신화』, 『운영전』, 『춘향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의 최고봉으로 평가 받는 작품이다. 『구운몽』은 김만중이 귀양을 가게 되면서 고향에 계신 노모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소설이다. 또한 노모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당시 천시하던 언문을 사용하여 지은 소설이다. 구운몽은 한글본과 한자본이 있는데 흔히들 한자본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김만중의 손자 김춘택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그 뒤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구운몽』은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소설작품이다. 20 세기에도 수백편의 연구 성과가 나왔고 21 세기 지금까지도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설내의 세부묘사가 충실하고 인물의 묘사나 전체적인 구조적 짜임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구운몽』의 제목은 九: 아홉 雲: 구름 夢: 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는 아홉 명의 주요 인물인 성진과 팔선녀를 뜻하는 것이고, 구름은 덧없는 인간의 존재를 비유하는 말이다. 그 리하여 제목은 ‘아홉 사람의 구름 같은 꿈’으로 해석되며 부귀의 무상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② 사씨남정기

명나라 세종 황제 시절, 유희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살았다. 유희는 학식이 뛰어났지만, 태학사 벼슬에 있던 엄승이와 마음이 맞지 않아 조정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유희에게는 유한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어린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어린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다 보니 청혼하는 집안이 많았다. 그러던 그 후 유소사가 유한림의 혼사에 대해 의논하다가 사급사 덕의 딸인 사정옥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사정옥은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운 뿐만 아니라 학식도 두루 갖추어 모르는 것이 없는 여인 이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출산을 하지 못했고, 너그러운 사정옥은 유한림에게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첩을 들이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유한림은 엄승이의 딸인 교채란을 첩으로 맞이하였다. 교채란은 성격이 질투가 많아 혼인 후 유한림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사씨를 비판하였다.

사정옥이 유한림과 혼인 후 10 년이 지났을 무렵 사정옥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인아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질투에 눈이 먼 교채란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이고 사정옥에게 죄를 덮어씌워 사정옥이 쫓겨나게 되었고, 교채란 일당의 습격을 받아 험난한 뱃길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사정옥은 묘혜대사를 만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교채란은 유한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동청이라는 권세 있는 집안의 식객과 놀아나며 못된 음모로 유한림을 유배시킨다. 하지만 조정에서 유한림은 아무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혐의를 풀어주었다. 자신이 교채란의 음모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유한림은 유배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정옥을 찾았고, 묘혜대사의 암자에 있던 사정옥은 유한림이 자신을 찾는다

는 것을 알고 둘은 서로 다시 만나게 된다. 유한림은 사정옥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와 사악한 교채란을 처형하고 사정옥을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하고 인현왕후를 폐비한 사건을 비판하고, 나아가 숙종을 뉘우치게 할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한다.

『사씨남정기』는 17세기 한글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사씨남정기』가 창작되기 이전에는 한문소설이 소설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17세기 중후반에는 한글소설과 한문소설이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사씨남정기는 한글소설의 대표적인 예의 작품이다.

또한 『사씨남정기』는 중국의 역사를 이용해 당시 우리사회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설이 중국소설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한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사씨남정기』는 여성 독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은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사회는 부계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는데, 이를 지지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김만중이다.

사정옥을 보면 유한림의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당시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덕목중 하나인 삼종지도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소설을 보면 유한림을 믿은 사정옥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씨남정기』는 여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관련유적



<김만중의 유배지 - 노도>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숙종의 태도를 앞장서서 반대하던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죽자, 김만중은 강경하게 숙종을 비판하였다. 그렇게 당파싸움이 한창일 1689년, 그는 남인의 탄핵을 받고 유배되었다. 이 사건을 기사사화라 한다.

서포 김만중이 유배되어 3년간 지낸 곳인 노도는 노를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 붙은 것이며 조선시대 당시 서울에서 가장 먼 땅이라고 생각되었던 남해도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그는 이곳에서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썼다. 인생의 부귀는 모두 한 날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구운몽』의 주인공은 본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사씨남정기』는 정치적 풍자소설인데 자신의 당파인 서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1997년, 남해문화원에서 주변을 정비하면서 김만중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지은 초가집, 그가 한 달 정도 묵어있었다는 허묘와 그가 직접 파서 이용했다는 우물 등을 구경하며 문학과 역사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참고문헌 : 김만중, 『김만중 작품선집』 (윤킨이 : 허문섭 외 4인), 학문사, 1994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출판부, 2001

정길수, 『구운몽 다시읽기』, 돌베개, 2010

장덕순, 『구운몽』, 명문당, 1994

송성욱, 『사씨남정기』, 현암사, 2004

4 조-박재삼

20111132 이소영
20121142 김기훈
20121115 남윤주
20121114 김화영
20121116 노용우

1. 생애

박재삼 시인은 1933년 일본 동경에서 출생하였다. 1936년 4살이 되던 해에 가족 모두 어머니의 고향인 삼천포로 귀국하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삼천포로 왔기 때문에 삼천포 앞바다의 풍경과 그곳에서의 유년체험은 후에 그의 시적 상상력의 근원이 되었다. 부모님의 막노동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며 살 정도로 가난했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할 입학금이 없어, 진학하지 못하고 삼천포 여중학교에서 사환 노릇을 한다. 어린 시절의 가난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서러움이 나중에 그의 여러 시에서 나타난다.

후에 1947년 교장의 도움으로 삼천포 중학 병설 야간중학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김상옥 시인과 만나고 감화를 받아 시를 쓸 결심을 한다. 4년제 중학교를 수석졸업 후 삼천포 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하여 또다시 수석으로 졸업을 한다. 삼천포 고등학교를 졸업 후, 같은 해 1953년 《문예》지에 모운숙 여사로부터 <강물에서>로 첫 추천을 받고, 이어 1955년 《현대문학》에 <섭리>(유치환), <정적>(서정주)으로 추천을 받고 등단을 한다. 같은 해에 《현대문학》 창간과 함께 사원으로 입사하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다. 1957년에는 직장 학교를 동시에 다닐 수 없어 대학교를 3학년에 중퇴하고 <춘향의 마음>이란 작품으로 ‘현대 문학신인상’을 수상 하였다.

1962년에 처녀시집<춘향의 마음>을 출간하고 김정립 여사와 결혼을 하였다. 1967년 남정현의 <분지>사건 공판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아 고혈압으로 6개월가량 입원을 하였고, 같은 해 <문교부 문예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에 제2시집 <햇빛 속에서> 집필하고 이때부터 《서울신문》 《대한일보》 《국제신보》 등에 바둑 관전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전업 작가가 되었다. 1975년 제3시집 <천년의 바람>과 1976년 제4시집

<어린 것들 옆에서>를 출간하고 이를 계기로 1977년 제9회 ‘한국시협상’을 수상한다.

이후에도 출간은 계속 되었다. 박재삼 시인은 지병으로 1995년 백일장 심사 도중
신부전

증으로 쓰러지고 나서도 1996년 병상에서 <다시 그리움으로>를 집필한다. 그는 앞서 말한 1967년에 얻은 고혈압이라는 지병을 계속 앓는 도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박재삼은 한국의 전통적인 서정시에 영향을 끼치고, 15권의 시집과 7권의 수필집을 남긴 채, 안타깝게도 1997년 6월 8일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대표작 :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천년의 바람>, <섭리>, <춘향의 마음>

인용 서적

김강태, 《월간 현대시》 (1997년 6월호).

배한봉, 《시로 여는 세상》 (2003년 가을호).

2. 작품 세계

박재삼의 시 세계는 시 「춘향이 마음」(1956)과 「울음이 타는 가을 강」(1959) 등으로 대표된다. 그는 한국 서정시의 전통적 음색을 재현하면서 소박한 일상 생활과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섬세한 가락으로 노래했다. 그는 슬픔이라는 정서에 한국적 정한의 세계를 절제된 가락으로 실어, 그 속에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그의 시에 있어서 자연이란 순수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자연에 의지하여 위로와 지혜를 얻기도 한다.

또한 그의 시는 1950 년대의 주류이던 모더니즘 시의 관념적이고 이국적인 모습과는 다르다. 그는 한국어에 대한 애정과 향토적인 정서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후 전통적인 서정시의 한 부분을 채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그의 시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어체의 어조와 잘 조율된 율격은, 시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별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이 작품은 시인의 굉장한 고독감이 나타나 있다.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한 요소이다. 잎이 떨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지는 가을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고독하게 하므로 시인의 심리를 부각한다. 이 작품을 보며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그 기쁜 첫사랑 산골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이다. 이 구절에서는 첫사랑의 추억이 사라지고 이후의 사랑까지 녹아난다는 것을 통해 사랑의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첫 구절에서는 화자의 불안한 심리가 묘사된다. 이는 사랑과도 연관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이가 없으므로 옛사랑을 생각하지만 이미 사라져가는 기억이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불안한 마음에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와 같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가을햇별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의 구절에서는 햇별이 아무리 좋다 한들 가을이 너무 쓸쓸하여 화자가 고독감만을 느끼게 한다.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의 구절은 고독한 화자가 사람이 많은 곳을 가도 화자의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 걸 뜻한다. 또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의 구절은 화자가 강과 같이 쓸쓸함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타오르는 노을에 비춰진 가을강의 뜨거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었다.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것네'의 마지막 구절은 화자의 낙담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박재삼은 전쟁 시절을 겪은 시인이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황폐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에 부정적인 면과 동시에 고독감이 드러난다.

<千年의 바람>

천 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소나무 가지에 쉴 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 아 라
아, 보 아 라 보 아 라
아직도 천 년 전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이 시는 흔하고 일상적인 단어에서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이다. 그다지 특별하게 보이는 시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특별한 시어가 없다는 그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지는 일상의 일들에서 삶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아직도 천 년 전의 되풀이다'의 의미는 소나무에게 간지러움을 주는 일이 하찮은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나 습관들이 모여서 하루치의 삶이 되고 그것들이 한 사람의 생을 만들며 다시 삶이 모여서 세상을 이룬다. 아마도 박재삼은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일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삶을 이루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들은 항상 '돈', '명예', '권력'같은 것들에만 집착하고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재삼은 그런 우리들에게 충고라도 하듯이 거창하고 허황된 것들보다 사소한 일상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에는 특별한 느낌의 시어가 없다. 꾸밈이 없고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표현, 하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색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시인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표현법인 것 같다. 가장 몽상적인 면을 갖고 있는, 그래서 더욱 서정적인 면모가 돋보이기 때문에 이 시에서 때 묻지 않은 순수한 표현을 느낄 수 있다.

3. 관련유적

①노산공원

노산공원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금동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노산공원에는 박재삼의 시 <천년의 바람>이 새겨진 시비가 있다. 이 외에도 충무공 이순신 동상과 355위의 호국영령 충혼탑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충혼탑 앞 광장에서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②박재삼 문학관



노산공원 안에는 박재삼 문학관이 위치하고 있다. 박재삼 문학관의 주요 전시 자료는 박재삼 시인의 친필 원고와 생전에 사용하던 필기구 등 유품 70 여 점이다. 또한 시 낭송 부스와 시 탁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박재삼 문학제, 백일장 등을 개최하여 시인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박재삼 거리

박재삼 거리는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 위치한 박재삼 시인의 생가에서 500m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 거리이다. 사천시와 박재삼 문학 기념 사업회 1)가 공동 추진으로 조성이 되었다. 거리의 왼쪽에는 앞서 소개했던 노산 공원이 위치해 있다. 시인의 생가였던 초가집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거리의 중간 쯤에 터로만 남아 있다.



④삼천포대교 공원



삼천포 대교 기념 공원은 창선-삼천포대교의 준공 기념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다. 삼천포 대교 기념 공원 내에는 박재삼 시인의 시「아득하면 되리라」시비와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 등 여러 조각 작품이 세워져 있다.

박재삼 「아득하면 되리라」의 시비.

5 조-유치환

20081120 신경립
20101112 김지혜
20121118 박은지
20121119 박정현
20121120 백효욱
20121121 변선호

1. 생애



청마 유치환은 1908년 7월 14일 경남 거제군 둔덕면 방하리에서 5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원래 유치환의 출생지는 경남 통영군 통영면 동부동으로 알려졌었지만 이 주소는 출생지가 아닌 유치환이 2살 때부터 그가 16살이 되던 해까지 살았던 성장지 주소였다.

1918년, 유치환은 통영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4학년 때인 1922년 유치환의 형인 '유치진'을 따라 간 일본에서 도요야마중학교(豊山中學校)에 입학하게 되었다. 16살이 되던 1923년에 유치진이 주도한 '토성회'에 참여하여 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도요야마중학교(豊山中學校) 4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귀국하게 된다. 동래 고등 보통학교 5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유치환은 이듬해 봄

에 졸업을 하고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한다.

귀국한 후에는 유치진을 중심으로 동심, 추상아, 장춘식 과 함께 『소제부』를 발간한다. 1930년, 유치환의 시 「오월의 마음」외 25편을 『소제부』에 발간한 후 1년 뒤에는 '문에 중앙'에 「정적」을 발표한다. 이 무렵에 최상규, 장응두, 권주용, 박영포, 유치상, 최두춘, 김기섭 과 함께 동인지 『생리』를 발행하였다.

1939년에는 『청마시초』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 유치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깃발」이 실리게 된다. 그리고 3년 뒤 이유 없이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를 사임하고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이주한다. 이 때 쓴 시가 바로 『생명의 서』에 수록되어있는 「수」, 「절명지」, 「광야에 와서」 등이다.

5년 뒤 해방이 되자 1945년 6월말 귀국하여 유치환은 통영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향토 문화인들을 모아 '통영문화협회'를 만들고 '민족의 밤'이라는 행사를 통해 공연을 하는가 하면, 야간 공민학교를 개설하여 한글 강습회를 개최한다. 10월에는 통영 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것에 이어 1946년 청년문학가협회 회장이 되었으며, 1년 뒤엔 한국 청년문학가협회 제 1회 시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5월에는 「귀고」 등이 수록된 시집 『생명의 서』를 발간한다.

1948년에는 통영여자중학교 교사를 사임하고 경남안의중학교 교장으로 부임된 유치환은

「동백꽃」외 34편의 시가 수록되어있는 「울릉도」를 펴낸다. 또한 6.25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간 유치환은 문인구국대를 조직하고 전쟁 중에는 『보병과 더불어』라는 시집을 발행

하였다. 1953년에는 경북대학교 문리대 강사를 약 1년간 하면서 1954년 『청마시집』, 『행

복은 이렇게 오더니라.』를 출간 하였다.

한국 시인협회 회장이 된 1957년 12월 달에는 『제 9 시집』이 간행된다. 그리고 1958년 12월에는 『유치환 시선』을 발행한다. 1963년에는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수필집 『나는 고독하지 않다.』를 펴냈으며 1964년 「한그루 백양나무」외 41편이 들어있는 『미루나무와 남풍』도 펴냈다. 그 뒤에 그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전임하였다.

1967년 『파도야 어쩌란 말이나』라는 시 선집을 내 마지막 시작의 불꽃을 태우려 다시 정신의 연결성을 갈구하던 유치환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들었다. 2월 13일 부산시 좌천동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유치환은 그의 나이 만 59세로 별세하였다.

2. 작품세계

유치환의 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생명과 혹은 인생파가 될 것이다. 그가 쓴 시의 대부분이 그렇듯 인생에 대한 허무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의문 등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스레 시 속에 담긴 소재 역시 인생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사용되었다.

유치환의 시세계는 초기와 후기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둘 다 생명의 본질 파악에 목적을 둔 것은 차이가 없다. 다만 초기에는 낭만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으로 허무주의를 표방한 반면, 후기에는 시적인 기교를 일체 무시한 이른바 무기교(無技巧)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깃발」은 허무주의를 상징적 표현으로 포장해낸 시이며, 제 2 시집인 『생명의 서(書)』는 강건하며 비장한 어조로 일체의 기교를 부정한 작품이다.

시에 사용된 소재를 살펴보면 유치환 역시 다른 시인들처럼 여러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간 그 자체를 비롯하여 사회, 자연, 사물, 문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종류의 소재들은 전부 인간의 이야기를 담기 위하여 사용된다. 사회나 문명과 같이 그 거리가 인간과 가까운 소재들은 물론이며, 그 이외에도 자연이나 사물 등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마저도 인간에 대해 노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했다. 예를 들어 「바위」에서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을 소재로 삼았다.

그러나 유치환은 바위가 가진 고요함과 견고함을 인간에 빗대어 외부의 변화나 감정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굳건한 의지로 허무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살려냈다. 이처럼 유

치환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소재가 인생과 허무에 연관되어 있으며,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유치환이 쓴 모든 시가 인생과 허무만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제 10 시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는 당시 유치환이 살고 있던 사회현실을 소재로 삼고 있다. 굳건하며 직설적인 어조는 그대로이지만 그가 쓴 대다수의 작품과는 달리 현



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의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유치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세계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세계관이다. 세상만물은 언젠가 소멸,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허무를 초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유치환은 허무의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것을 인간의 본질로 여겼다. 그는 우주적 교감과 생명에의 열애를 노래하면서 시대적 불행까지도 의지로 극복하고자 했다. 그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느꼈을 감정의 변화와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시로 승화시킴으로써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치열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생명의 본질과 인생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순 앞에서 좌절하기도, 허무에 사로잡히기도 했으나 결국 의지로 극복하고자 했다. 결국 유치환은 시인이라는 이름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담겨 있는 비극과 허무를 대면하여 구원의 통로를 제시할 수 있는 의지의 화신이 되고자 한 평생 시를 쓴 것이다.

3. 대표작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술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죽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봇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통영 중앙동우체국의 「행복」 시비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 더 의지 삼고 피어 흥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뜻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 시에서 유치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쩌면 오늘날에 와서는 다소 식상할지도 모르는 '사랑을 주는 것'에서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 첫 행에서 알 수

있듯이 유치환은 사랑을 주는 것에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사랑을 주는 행위는 '편지를 쓴다'는 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즉,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유치환의 사랑하는 방식인 것이다.

또 그러한 사랑의 방식은 편지를 부치는 우체국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2 연의 '술한 사람들'도 그리고 유치환도 우체국에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행이 수미 상관적 구성으로 이루어져있어 유치환이 추구하는 것이 사랑을 주는 일이고, 그러한 사랑의 방식은 편지를 쓰는 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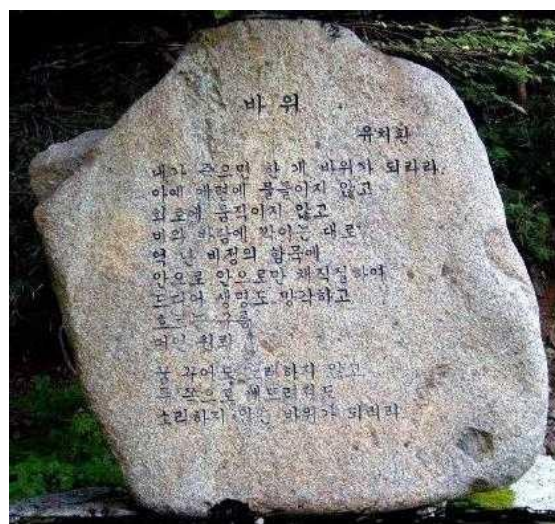
또한, 3 연의 양귀비꽃은 '바람'이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피어난 혹은 더욱 굳건해진 유치환과 그가 사랑하는 대상간의 '사랑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했던 '사랑'을 다시금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대부분의 유치환의 시와는 다르게 관념적인 것과 남성적인 어조를 배제하고,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소재를 부드럽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끝으로, 이 시를 쓴 시기가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말하고 싶었던 유치환의 소망이자, 어쩌면 다른 이들 모두가 추구한 행복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행복」이라는 시는 전혀 식상하지 않은 오히려 참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바위>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함묵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죄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바위」 시비

청마 유치환 시인은 주로 의지의 시인이라 불렸다. 이 시는 1941 년 『삼천리』에 발표된 시이며, 그의 남성적이고 허무극복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바위'는 유치환의 굳은 의지의 결정체, 초극적인 말을 형상화한 것이다. 유치환이 바위가 되고 싶다고 한 것은 '애련'과 '희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위한 비장한 각오와 결의의 표현이다. '비와 바람'은 유치환에게 오는 외부의 시련이며 이 비와 바람이

가져오는 ‘흐르는 구름’과 ‘머언 원뢰’는 유치환을 유혹하며 자극하는 것, 즉, 외부의 시련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안으로, 안으로 채찍질하는 것’은 유치환이 본인의 내면을 단련하고자 함을 말한다. ‘비정의 함묵’은 유치환이 나타내는 견고한 의지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치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라고 끝맺음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 의지를 노래하였다.

유치환은 남성적이고 의지적이며 단호한 어조로 나약함이라는 인간적인 성격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유치환은 인간의 가벼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련하며 시련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어떠한 감정과 외부 자극에도 미동 없이 내면으로 허무의 의지를 인식하여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냉철한 인간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시는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라는 근엄하고 장엄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다. 굳건한 의지의 매개체인 바위를 통해 죽음으로 비롯되는 허무의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외의 시어구와 시행은 1 행에서와 같이 선언한 이유가 되는 바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애련과 희로처럼 쉽사리 흔들리기 쉬운 감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단련하여 비와 바람으로부터의 시련에도 곳곳이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스스로의 생명도 망각한 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이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대조시킴으로써 영원불변함에 대한 동경도 드러나고 있다. 고통도 느끼지 않고 어떠한 감정조차 없는 바위는 유치환이 지향하는 의지의 모습이며, 바위에게는 비와 바람은 그저 외부로부터 오는 현상일 뿐 그 어떤 흔들림을 줄 수가 없다.

유치환은 본인이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어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자신의 몸이 두 쪽으로 깨져도 비명조차 지르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이상과 스스로의 파멸을 극복하여 생명에의 의지를 나타내어 허무를 이겨내기 위한 유치환의 사상을 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4. 관련유적



청마박물관

경상남도 통영에는 청마 유치환 선생을 기념하는 ‘청마 문학관’이 있다. ‘청마문학관’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는데, 이는 맑고 시원한 시세계를 펼쳤던 유치환 선생의 분위기와 어울려져있다.

이곳에는 유치환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어있으나, 사실 유치환 선생이 태어난 곳은 아니다. 유치환 선생이 태어난 통영의 시내인 태

평동은 너무 복잡하여 지금 위치하는 그곳에 생가를 복원하고 ‘청마 문학관’을 세웠다.

‘청마 문학관’은 도입부와 세 가지 주제로 나뉘지는 전시관이 있다. 처음 들어가면 유치환 선생과 다른 통영 출신의 문인들을 소개한다. 세 가지 전시실은 유치환의 생애, 문학, 발자취라는 주제로 각각 전시되어있다.

오른쪽 사진은 기념관 뒤쪽으로 복원된 생가의 모습이다. 본채는 이곳에 있지 않았으나 2000년 5월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함께 옮겨 왔다고 한다.

정성들여 쌓아올린 돌담에는 담쟁이덩굴이 타고 올라가고 있고 아담하고 포근한 두 채의 초가집은 정겹기 그지없다.

본채와 사랑채 두 채의 작은 초가집에 당시에 생활하던 모습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또한 싸리문 대문, 텃밭과 우물 등 청마가 태어난 1908년 옛 모습을 그대로 되살렸다. 마루에는 청마의 가족사진이 걸려 있고 방안과 부엌의 모습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방 안에는 앓은뱅이 책상과 집필을 할 때 썼음직한 펜대와 노트들이 있으며 오래된 책들과 라디오도 보인다. 부엌으로 가면 가마 솥과 옛 가재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에 위치해있는 청마고향시비에는 유치환 선생의 시가 새겨져 있다. '거제도 둔덕골'이라는 고향을 그리는 내용의 시가 새겨져 있다.



◆참고문헌◆

- 김용직, 『절대의지의 미학』, 『다시 읽는 유치환』, 시문학사, 2008.
 청마문학회, 『다시 읽는 유치환-청마 탄신 100 주년 기념 문집』, 시문학사, 2008.
 박철희편, 『유치환』, 20호, 서강대학교출판부, 1999.
 오세영, 『유치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사진출처◆

<http://dragonphoto.tistory.com/244?srchid=IIM6GAww000>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청마 기념관)

(출처-<http://blog.paran.com/apollo695/44770200>)

6 조-김춘수

20081132 이재혁
20091143 한유진
20121122 변지선
20121123 손선영
20121124 송은정
20121125 오은영

1. 김춘수

김춘수는 ‘실험의식의 시인’ ‘존재의 시인’ 또는 ‘꽃의 시인’ ‘무의미의 시인’ ‘인식의 시인’으로 불리어진다. 그는 1948 년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발표한 후로부터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시적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활동으로 인해 평론가들에게 꾸준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구름과 장미』를 시작으로 무려 15 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이 밖의 세편의 소설과 다수의 산문집과 평문집 등을 냈는데 김춘수는 자신의 시작의도에 대한 오해를 고려해 시론은 물론이고 시집의 서문과 후기, 산문과 소설에 해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김춘수의 작품은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시기를 나누는 것은 그의 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의미에 따른 것이다. 초기 시는 대부분의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서정시에서 출발하였다. 그 후에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후기 시에서는 대상과 관념을 배제한 ‘무의미시’를 실험하였다.

그의 초기 시는 이런 인식의 세례 아래 쓰여진 다소 감수성 짙은 관념적인 시들이 주조를 이룬다. 이후 시인이 ‘비로소 나만의 시를 쓰게 되었다’고 기억하는 꽃에 관한 일련의 시들은 이른바 대표작이다. 김춘수만큼 ‘꽃’이라는 대상에 관념의 무게를 얹은 시인이 드물 정도로 의미가 무겁게 부여된 시들이다.

꽃이라는 존재가 인격화되고 극대화된 이 시들은 인식론적 깊이, 존재론적 탐구, 이데아의 세계관으로 해석되는 관념과 비의의 시 세계이다. 즉, 김춘수 초기의 경향은 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물의 본질과 진실성을 추구하였다.

김춘수가 논의한 ‘무의미시’란 역사나 현실에 대한 허무의식의 표출의 일환으로 의미나 대상의 형상화를 의도하지 않는 시작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무의미시의 전략은 오히려 수많은 역사적·시대적 함의를 생산하는 효과를 낳는다. 김춘수에게서 드러나는 ‘무의미’는 ‘의미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정되는 ‘의미’를 해체함으로써 이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의미’를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의미’는 의미의 포기가 아니라 언어가 하나의 고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양함으로써 무의미의 순환이라는 구조적인 층위에서의 의미를 겨냥하게 된다. 그것은 한 대상에 고착되지 않는 언어의 의미, 즉 언어와 대상의 간극 사이에 자리하는 실재적 대상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의 방식으로 구현된다.

1922 년에 경남 충무시 동호동 출생. 1946 년 시화집 《날개》에서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시작(詩作)을 시작했으며, 대구 지방에 발행된 동인지 '죽순'에서 시 「온실」외 1 편을 발표, 첫 시집 『구름과 장미』가 발행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후 「산악」, 「기(旗)」 「모나리자에게」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주로 《문학예술》, 《현대문학》, 《사상계》, 《현대시학》등의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였고, 평론가로도 활동하였다.

초기 시 경향은 릴케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물의 정확성과 치밀성, 진실성을 추구하였으나, 50 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무의미의 시를 쓰게 되었으며 산문적인 성격의 문장을 시의 형식으로 도입하였는데 《현대시학》 연재 당시 발표한 「처용단장」에서부터는 설명적 요소를 제시한 이미지 작품으로 변모하였다.

- 1922 년 11 월 25 일 통영시 동호동 출생. 통영공립보통학교, 경기공립중학교, 일본대 창작과 졸업.

- 1945 년 통영문화협회 창립과 함께 창작활동 시작.

- 1946 년 통영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후 마산중, 해인대학, 경북대, 영남대 등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81 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

- 1947 년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시작으로 40 년간 25 권의 시집을 펴내 한국시인협회 상, 경상남도 문화상, 문화훈장 등을 수상.

- 2004 년 11 월 29 일 별세.

- 요저서 『구름과 장미』 1948/ 『늪』 1950/ 『기』 1951/ 『인인』 1953/ 『꽃의 소묘』 1959/ 『처용』 1974/ 『김춘수시선』 1976/ 『남천』 1977/ 『비에젖은달』 1980 『꽃을위한서시』 1987/ 『너를향하여나는』 1988.

2. 작품세계

김춘수 시인은 인식의 시인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인식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시를 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시가 많다.

김춘수 시인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묘사 주의적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묘사 주의적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시적 대상(사물)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그것에 객관성과 주체성을 부여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김춘수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엄격하게 배제한 채 시적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해나가는 방식으로 시를 전개한 것이다.

김춘수 시인에 대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의미의 시와 무의미의 시를 선회하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처음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적 경향은 그의 대표작인 '꽃'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꽃'의 한 일부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그는 꽃이라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경향은 '꽃 2'에서의 구절 '꽃이여! 라고 내가 부르면, 그것은 내 손바닥에서 어디론지 까마득히 떨어져간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언어에 집중하던 그는 현재의 낡은 언어로 사물의 본질적 의미에 다다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앞서 말했던 묘사 주의적 언어를 사용하여 더 이상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주관적 의미를 없애 나가는 방식으로 점점 의미시에서 무의미시의 세계로 나아갔다. 그의 무의미시의 대표적인 예로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이다. 이 시는 앞서 예를 들었던 ‘꽃’이나 ‘꽃 2’ 같은 시와는 달리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지 않고, 그저 차분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시를 전개해 나간다.

하지만 그가 의미의 시를 자신의 작품 속에서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이후 발표된 ‘사족’ ‘산보길’ 등의 시를 보면 다시 의미를 추구하려는 그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무의미에서 다시금 의미로의 방향 전향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이렇듯 작품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미와 무의미의 사이를 넘나들었고, 그러면서 존재론적 문제나 내면 탐구, 무의미와 의미의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여 시를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참고 문헌 - 하현식, 한국시인론, 백산출판사, 1966

3. 대표작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꽃의 소묘(素描), 백자사, 1959

김춘수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시 ‘꽃’을 떠올릴 것이다. 대부분의 시에서 꽃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형상하지만 그의 시에서의 꽃은 좀 더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김춘수는 존재에 대한 형이상적 탐구에 몰두하였다. 그러한 그의 작품에는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 고뇌함이 잘 드러나 있으며 그 본질적인 의미 추구가 절정에 다다른 작품이 바로 ‘꽃’이다. ‘꽃’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의미 없는 것에서, 상호 인식을 통하여 의미 있는 것, 또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그 과정이 1 연에서 내가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엔 그저 하나의 몸짓이었던 꽃이 내가 이름을 불러준 뒤에 나에게로 와서 관계 속에서의 꽃이 된 부분에서 나타나있다. 이름을 붙이는 일이 사물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면 3,4 연의 내용을 내가 어떤 사물에게 꽃이라는 이름과 의미를 주었듯이 나에게도 누가 알맞은 이름과 의미를 달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제 4 연에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한 사람들은 ‘나’와 ‘너’에게 자신이 가진 소중한 관계를 대입하면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돌아 된다. 아마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 이 시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4. 유적지

①김춘수 생가



대여 김춘수 선생의 생가는 남망산 조각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다.

현재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김춘수는 이곳에서(통영 동호동) 1992년 11월 25일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②유품전시관

통영항이 한눈에 보이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451에 위치해 있다. 4층 건물의 1,2층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 통영시에서 적당한 문학관자리를 준비해주지 않아서 임시로 자녀들에게 유품을 받아 전시해놓고 있다.



7 조-이순신

20091112 박 빛
20061131 이승준
20121126 원예진
20121127 유동현
20121128 윤지은
20121129 윤희정

1. 생애



이순신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諧)이다. 이순신은 서울 건천동(乾川洞 : 지금의 중구 인현동 부근)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가계는 고려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李敦守)로부터 내려오는 문반(文班)의 가문으로, 이순신은 그의 12대손이 된다. 1576년 2월 식년무과에 병과로 합격하였고, 그해 12월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權 9품)이 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에서 일본 수군과 첫 해전을 벌였다. 또 당포해전과 1차 당항포해전에서 공을 세워 자헌대부로 품계가 올라갔다. 같은 해 7월 한산도대첩으로 정헌대부에 올랐다.

1593년(선조 26) 한산도로 진영을 옮기고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1597년(선조 30) 일본은 이종간첩으로 하여금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수군을 시켜 생포하도록 하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계략을 꾸몄다. 이를 사실로 믿은 조정의 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의 계략임을 간파하여 출동하지 않았다. 가토 기요마사는 이미 여러 날 전에 조선에 상륙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적장을 놓아주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우의정 정탁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도원수 권율의 밑에서 두 번째 백의종군을 했다. 그 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그는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명량대첩). 1598년(선조 31) 2월 고금도(古今島)로 진영을 옮긴 뒤, 11월에 명나라 제독 진린과 연합하여 철수하기 위해 노랑에 집결한 일본군과 혼전을 벌이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노랑해전).

2. 업적

이순신은 임진년 1592년 당시 왜국 전국을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4월 13일 무조건적인 침략이 시작된 임진왜란 동안에 많은 업적들을 세웠다. 또 그는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놀라운 지략 및 무기를 이용해 많은 왜군을 소탕하였다.

1592년 5월 07일 : 제 1차 옥포해전 대승첩

이순신은 왜적이 잠복하고 있을 것 같은 장소를 탐색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해전을 계획하였다. 또한 적은 병력을 가지고 많은 함대가 출동한 것처럼 위장전술을 펼쳤다. 이순신은 학익진을 이용하여 적을 괴멸시켰다.

1592년 5월 29일 : 경상도 사천에서 승첩

왜군이 조선을 깔보는 것을 이용하여 유인전술을 사용하여 적 일부분이 산에 있는 왜성에 내려오게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거북선이 등장하여 2척의 배를 남겨두고서 모든 왜군의 배를 몰락시켰다.

1592년 7월 08일 : 제 3차 한산도 대승첩

조선 수군은 견내량의 지리적 요건, 즉 매우 특이한 자연적 조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왜군을 소탕하였다. 이순신은 왜군들을 견내량을 건너도록 유인하였고, 아군을 쫓는 왜군을 학익진 전법을 이용하여 제압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아군의 배는 한 척도 파손되지 않았다.

1596년 9월 16일 : 명량해전 대승첩

이 해전에서 이순신의 기함은 울도목을 막아서고 조류가 바뀔 때까지 버텼다. 그 후 왜군은 뒤로 돌려 도망가려 하지만 빠른 조류 때문에 암초에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왜군은 거의 전멸하였고 아군의 배는 한척도 손상되지 않았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이순신이 전사하게 되는 해전이다. 7년간의 임진란의 마지막 격전으로 왜군은 크게 패하여 500여척의 전함 중 겨우 50척만이 남해로 돌아났다.

3. 난중일기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 76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명칭은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李忠武公亂中日記附書簡帖壬辰狀草)이다. 부록으로 서간첩 1책, 임진장초 1책, 합 9책이다.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白岩里) 현충사(顯忠祠)에 소장되어 있다.

「난중일기」 : ① 임진일기(壬辰日記): 27매, ② 계사일기(癸巳日記) : 30매, ③ 갑오일기(甲午日記) : 52매, ④ 병신일기(丙申日記) : 41매, ⑤ 정유일기(丁酉日記) : 27매, ⑥ 속정유일기(續丁酉日記) : 20매, 겹장이 없고 첫 장에 '丁酉'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일기 내용은 정유에서 무술 정초에 이르고 있고, ⑤의 정유일기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난중일기」란 충무공이 전쟁 간 기록한 진중일기이다. 임진년(1592) 1월 1일부터 무술년(1598) 11월 17일 까지 7년 동안 부득이 출전한 날을 제외하고 간지와 날씨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또 중요 시사점은 그 당시의 전반적인 활약상, 가족관계, 부하와 상관들의 갈등관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폭넓게 다뤄졌다는데 있다. 이외에도 충무공의 출중한 문력을 입증하고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난중일기」는 충무공이 직접 초서체로 작성한 것으로 알아보기가 힘들어 후대에 해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 정조 19년(1795)에 이 초고본을 정자로 해독하여

「이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전서본)가 나왔지만 원문에 상당한 누락과 오독이 있었다. 그 후 1935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를 다시 해독하여 「난중일기초」가 나왔는데 이는 전서본보다 진전된 작업이었으나 해독상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4. 작품

한산도가(閑山島歌)

寒山島月明夜 (한산도월명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上戍樓撫大刀 (상수루무대도) 수루에 혼자 올라 큰 칼 불끈 잡고
深愁時何處 (심수시하처)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에선가
一聲羌笛更添愁 (일성강적경첨수) 들려오는 피리소리, 이내 시름 더해 주네

이 작품은 동료들과 부하의 죽음, 폐허가 되어 버린 고을의 모습과 곧 닥칠 왜군에 비해 너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본 이순신의 허전한 마음과 쓸쓸한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한산도 야음(閑山島 夜吟)

水國秋光暮 (수국추광모) 한바다에 가을 빛 저물었는데
驚寒雁陣高 (경한안진고)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憂心轉輾夜 (우심전전야)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이루는 밤
殘月照弓刀 (잔월조궁도)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장군의 시이다. 당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서정적인 시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서정적인 시구 하나하나에도 장군의 고독한 심경을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5. 유적지

①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사적 제 113 호 9 지정일자 1963.1.21)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6 번지 제승당 일대에 조성된
지상건물과 각종비석, 운반이 가능한 동산 문화재, 조경물을
비롯해서 주위경 관까지를 통칭한다.



② 통영 충렬사 —사적 236 호(지정일자 1973.6.11.)

—경남 통영시 여황로 251(명정동)

통영시 명정동 213 번지에 있는 통영 충렬사는 이운룡이 왕명을 받들어 이순신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지금의 충렬사는 물 17 동과 5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2 월과 8 월 중정일에 향사를, 4 월에는 이순신 탄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③ 착량묘 —경상남도 기념물 제 13 호(지정일자 1974.2.16.)

—경남 통영시 당동 8

통영시 당동 8 번지에 있는 착량묘는 수군들과 이곳 주민들이 이충무공의 충절과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공의 위패를 모식 위해 착량 언덕에 초가로 지은 사당이다. 그 후 이규석이 초가를 기와집으로 고쳐짓고 착량묘라 칭했다. 1974 년에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그 해부터 1985 년까지 5 회에 걸친 정화사업이 이루어져 동재와 고직사, 외삼문, 일각문이 신축되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11 월 19 일에 이충무공의 기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④ 한산대첩축제와 이순신공원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683

이순신과 한산대첩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통영시에서는 매년 한산대첩기념축제가 열리고 있다. 1962 년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회가 결성된 그 해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년 한차례씩 한산대첩기념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순신공원은 이순신동상과 학익정을 비롯하여 승전무와 남해안 별신 곳, 통영 오광대 등의 예능전수관이 함께 해 시민공원으로서 인기가 좋다.



《참고문헌》

노승석 저 교감완역, 『난중일기』, (주)민음사 2010

이순신 저 이용호 옮김, 新譯 『난중일기』, 동광문화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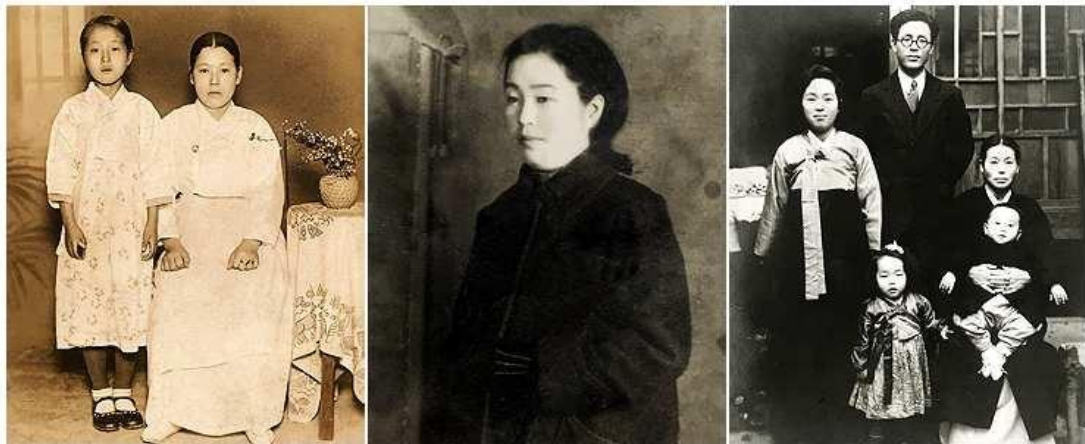
노병천 저 『완벽한 승리』, 성현출판사

박천홍 저 『인간 이순신 평전』, 북하우스 2005

8 조-박경리

20091102 김태윤
20061137 전상호
20121130 이다영
20121131 이지영
20121132 이은혜
20121133 이병호

1. 생애



(좌)소녀 박경리와 어머니 (중)진주 여고 졸업식 모습 (우)가족사진 [출처: 네이버 캐스트 인물사전]

박경리(朴景利)[본명: 박금이(朴今伊)] 작가는 1926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출생했고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쓸쓸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박경리는 책과 공상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갔다. 박경리는 이런 가정환경과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한 사회상 속에서 삶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치열한 반항 정신을 키우게 되었다.¹⁾ 그녀는 1945년 진주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학창 시절 때 독서광이라고 불릴 만큼 책을 좋아했다고 한다. 졸업 후 황해도 연안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1946년 김행도 씨와 결혼하였으나 1950년 사별한다. 게다가 전쟁 직후에는 어린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마저 겪게 된다.

박경리는 이러한 잔혹한 운명에 대한 분노로 인해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억울함’이 ‘무엇인지 모르게 고발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는 정신적 절박’ 속으로 그녀를 내몰았던 것이다.²⁾ 이 후 1955년 『현대문학』에 단편 「계산」을 처녀작으로 발표했고, 1956년 「흑흑백백」이라는 단편소설이 김동리에 의해 추천되면서 등단하게 된다. 그 뒤 창작활동으로 「전도」, 「불신시대」, 「암흑시대」 같은 삶에 대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들을 발표했고, 『현대문학』 신인상과, 내성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1958년에는 첫 장편 「애가」를 발표하며, 집필하던 소설을 단편 중심에서 장편으로 옮겨가며 개인의 비극과 고통을 넘어섰다. 특히 「김 약국의 딸들」은 소재와 기법 면에서 그녀의 본래 필력을

1) , 『土地 연구』, 月印출판, 1999.

2) 박경리, 『문학과 나』, 지식 산업사, 1981.

완벽하게 탈바꿈 해보인 새로운 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65년에는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평범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장편 소설 「시장과 전장」을 간행해 주목을 받아 여류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1969년부터 대표작 「토지」 집필을 시작한 이래 1995년 탈고할 때 까지 이 작업에만 매달렸다. 집필 중 발병한 폐암 때문에 많은 수술도 받았지만, 박경리는 결코 「토지」의 원고 집필을 미루지 않았고, 끝내 그녀의 대표작이자 한국 문학의 커다란 산맥으로 자리 잡은 대하소설 「토지」를 완성하게 되었다. 서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삶과 문학을 『토지』로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의지,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셈이다.

「토지」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변천 속에서 다양한 인물이 겪는 고난의 운명을 묘사하며, 그들의 현실 극복 의지를 통해 민족의 한과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조명을 시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후 1991년 인촌상, 1992년 보관문화훈장, 1994년 올해의 여성상, 1994년 유네스코 서울협회 선정 올해의 인물, 1996년 제 6회 호암상과 칠레 정부 선정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기념 메달’을 수상하였고, 「토지」 집필이후에도 시집 『우리들의 시간』, 중국기행문 『만리장성의 나라』, 새 장편소설 『나비야 청산가자』(미완), 첫 장편동화 『은하수』 등을 출간하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렇듯 박경리 작가가 한국 문학사에 쌓아 올린 공적은 결코 적지 않다. 혹자는 박경리의 문학은 한국 문학사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녀는 2008년 5월 5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는 등, 아직까지도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작가로서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속에서 숨 쉬고 있다.



박경리 선생의 생전 집필 모습 [출처: 네이버 캐스트 인물사]

2. 작품세계

박경리는 1955 년에 문단에 데뷔한 이래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1969 년부터 연재를 시작, 26 년에 걸친, 4 만 여장 분량의 「토지」는 박경리 개인에게나 한국문학에 있어서나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논의들, 즉 역사소설인가 아닌가가 문제시 되었다거나 농민소설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다거나 총괄체 소설, 가족사 소설, 민족사 소설, 총체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규정되어 온 것은 곧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서사구조, 다양한 층위의 세계가 중층적인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지」는 거대한 원고지 분량에 걸맞게 7 백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시간적으로는 1897 년부터 1945 년까지라는 한국사회의 반세기에 걸친 기나긴 격동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학혁명에서 외세의 침략, 신분질서의 와해, 개화와 수구, 국권 침탈,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격동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종적인 축으로 하여 진주와 간도(만주), 경성, 일본 등으로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윤 씨 부인과 최 치수, 최 서희로 이어지는 최 참판 댁과 연결되어 삶을 엮어가는 평사리의 주민들, 김 길상 이나 김 환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에 투신하는 인물들, 신지식인들 등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박경리의 문학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소외문제, 낭만적 사랑에서 생명사상으로의 흐름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 생명사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바로 '토지'이다. 박경리에 의하면 '존엄성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인데 박경리는 그의 작품에서 이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본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토지」의 주인공 서희는 바로 이 존엄성을 지키려는 가장 강한 의지의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 있어서 존엄성의 문제는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기존의 관습과 제도 및 권력과 집단에 대한 비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존엄성을 상실한 인간들에 대한 멸시와 혐오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존엄성을 상실할 때에 바로 한이 등장하는 것이며 이 한을 풀어가는 과정이 곧 박경리 문학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토지」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생명사상은 바로 이 존엄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출처: 김 은철(상지대 국문과 교수), 박경리 문학공원 홈페이지

3. 대표작

「토지」는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인의 삶을 담은 대하소설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하기까지 다양한 인물이 겪는 고난을 잘 묘사하였다. 그 배경은 경상도 하동의 평사리에서 시작해 만주와 서울·도쿄 등지로 뻗어나간다. 이 소설은 대지주 최 참판 댁의 4 대에 걸친 모계 중심의 가족사가 펼쳐진다. 이것을 축으로 양반 토호, 농민, 노비,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계층이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어우러진다. 또한 개항, 의병 항쟁, 동학운동, 독립운동 등 한국 근대인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고 있다.

「토지」의 한계로 부와 노동, 공동체적 집단의 문제가 가족사적 혈연과 재산의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는 게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은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대하소설로 손색이 없다. 우리는 소설 속 인물들의 현실 극복 의지를 통해 민족의 한과 역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래 혈통의 인습을 깨뜨린 점이 인상 깊다. 윤 씨 부인에서 서희로 이어지는 가문 계승의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봉건적 가부장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다. 즉, ‘남자에서 남자로 이어지는 재래 혈통계승의 인습을 깨고,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지는 여성 혈통계승의 가족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평가

- 「토지」는 4 세대에 걸친 최 참판 댁의 가족사와 함께 한 마을의 집단적 운명이 평사리에서 북간도·진주(晋州)·서울·중국 대륙 등으로 광역 이동되며 조명되는 총괄적 소설이다. 작가가 떠올리려는 삶의 다면성(多面性)에는 양반과 상민의 관점이 교차하며 불교·동학(東學)·무속(巫俗)·유가(儒家)·기독교적 세계 인식과 윤리의식이 치밀하고도 뜨겁게 얹혀 있다.

(박 래부, 『문학 기행』, 한국일보사, 1987)

-가족이라는 혈연 단위와 그 확대를 역사적인 시대의 교체와 맞물리도록 고안함으로써, 조선 말기 이후 한국 사회의 근대화라는 격변기를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들의 창조에 성공하고 있다.

(권 영민, 『한국 현대 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서부 경남 방언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풍속을 탁월하게 재현한 점, 심리의 미묘한 곡절을 섬세하게 추적하는 비상한 능력에 힘입은 심오한 인간 통찰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 군더더기 없는 정갈하고 담백한 문체를 정립함으로써 부황한 수사와 말장난이 뒤범벅된 박래의 문체를 구축할 수 있는 전범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은 「토지」가 거둔 성과이다.

(김 윤식, 정 호웅, 『한국 소설사』, 예하, 1993)

-1984 년의 <한국일보> 창간 30 주년 기념 '한국 전후문학 30 년 최대 문제작' 선정 행사에서 선우휘의 「불꽃」, 황석영의 「장길산」과 함께 「토지」가 선정.

1969 년 <현대문학>에서 처음 시작한 「토지」의 연재는 여러 매체를 거침

1972 년 <문학사상>으로 자리를 옮겨 2 부를 연재

1973 년 <삼성출판사>에서 연재 도중에 단행본으로 처음 출간

1978 년 다시 <한국문학>과 <주부생활>에 3 부를 연재

1981 년 <마당>으로 옮겨 4 부를 연재

1983 년 -<정경문화>에 <마당>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4 부의 나머지를 연재

(1987 년 8 월부터는 제호가 <월간경향>으로 바뀜)

-1 부 8 권이 안 우식의 번역으로 일본에서 출간

1992 년 9 월부터 <문화일보>에 5 부를 연재

1994 년 민 희식과 앙드레 파브르의 공동 번역으로 프랑스 <벨퐁>에서 불어판이 출간

1995 년 홍명희의 번역으로 영국 <키건폴출판사>에서 영어판이 출간

(이후 또 몇 차례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음)

「토지」의 의의

「토지」는 봉건적 가족 제도와 신분 질서의 해체, 서구 문물의 수용과 식민지 지배의 과정, 간도 생활과 민족의 이동, 독립운동의 전개와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변화 등을 초점으로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조류가 서로 침투하는 웅대한 조망의 세계를 펼쳐고 있다. 개항기 이래 한국 사회의 풍속에 대한 풍성한 탐구, 각양각색의 인간상의 창출, 삶의 의미와 역사의 원동력에 대한 심오한 직관은 그 격변과 진통의 시대를 살아갈 한국인의 삶을 장엄한 파노라마로 육화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

요컨대 「토지」는 땅을 매개로 삶을 영위해 가는 순환적 터전이라는 기본 의미를 포괄하면서, 그것을 넘어 전체 서사의 내용에 반영된 자본제적 소유와 욕망의 개념, 더 나아가 식민지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통해 근대사회로 변화해 가는 역사적 도정에서 한민족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성수(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박경리 문학공원 홈페이지-

「토지」는 우리의 근대사를 민초들의 생활상을 통해서 그렸다는데 점, 그리고 신분질서의 와해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겪는 백성들의 수난사를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 재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지」는 토착적이고 전통적인 세계에 대해 뜨거운 애정을 보이면서도 근대적인 것 앞에서 몰락해 가는 군상들을 냉철하게 묘사하고, 우리의 역사를 민중 주체적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다. 박경리는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는데, 「토지」를 통해 작가 박경리의 본질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과 글쓰기에 대한 정성을 엿볼 수 있다. 「토지」는 강렬한 민족애와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 토속어의 구사, 인물의 생생한 묘사 등으로 우리 근대 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작품이다.

-참고문헌: 나 병철, 『토지의 시점 연구』, 한국문학도서관, 1996-

4. 유적



① 생가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328-1

② 묘지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양지농원

③ 토지문화관

위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토지문화재단 문화관.

설립 목적: 1999 년 개관하였으며, 박경리 작가는 숲 속의 맑은 공간에서 국내외 여러 석학 및 예술인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문관을 세웠다고 한다. 문학관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학관이 아닌 문화관이다. 토지문화관 바로



옆에는 소설가 박경리가 1998 년부터 2008 년 5 월 타계할 때 까지 거주했던 2 층집이 있다.

④ 박경리 문학공원



위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20-5

박경리 문학공원은 대하소설 「토지」 란 관련이 있다.

박경리 작가는 소설 토지 4 부와 5 부를 이곳에서 집필 하였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박경리 작가의 옛집을

공원부지로 전환하였다. 또한 작가의 소설 토지에 나오는 용두레벌, 평사리 마당, 홍이 동산 등을 재현하였다고 한다.

⑤ 박경리 문학관 (기념관)



위치: 강원도 통영시

통영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에는 박경리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전시장이 있다. 문학관 주변에는 박경리 작가가 살아계셨을 때 살았던 집과 묘소 등이 있다.

[] 태극출판사 대세계 백과사전 , 사진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20071130 이용희
20097004 윤준석
20121134 임남희
20121135 임종규
20121136 전예름
20121137 정지안

1. 생애

1936년 4월 13일 함북 회령 출생. 목재상이었던 아버지 최국성과 어머니 김경숙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 원산중학을 거쳐 원산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그해 12월 전 가족이 월남했다. 목포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4학년을 중퇴하고(1957), 1958년 군에 입대하여 6년간 군생활을 하다가 1963년 제대했다 제대 후 소설가, 희곡작가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고 1973년 미국 아이오와대학 작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에 건너가 3년간을 머물다가 귀국한 후, 1977년부터 서울예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군복무 중이던 1959년, 『자유문학』 지에 「GREY 구락부 전말기」, 「라울전」이 안수길에 의해 추천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다.

다음 해 중편 「광장」(1960)을 발표함으로써 문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이후 「회색인」(1963~1964), 「서유기」(1966),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69~1972), 「태풍」(1973)으로 이어지는 5대 장편과 「가면고」(1960), 「구운몽」(1962), 「열하일기」(1962) 등의 중편, 「우상의 집」(1960), 「웃음소리」(1966), 「국도의 끝」(1966) 등의 단편,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1963~1966), 「총독의 소리」(1967~1976), 「주석의 소리」(1969) 연작 등 많은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1960년대 전 기간과 1970년대의 일부 기간을 합해서 질적·양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김으로써 김현·김윤식의 『한국문학사』(1973)에서 ‘전후 최대의 작가’라는 평가를 얻었다.

1970년대 후반기는 나중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1979)로 묶이게 되는 일련의 희곡 작업에 몰입하는 시기이거나, 이때까지의 소설, 희곡, 수필, 문학론 등 모든 양식의 글들이 모여 문학과지성사에서 12권의 『최인훈전집』(1979)이 간행되었다. 10여년간의 문학적 휴지기를 거친 후에, 1994년 세계사적 냉전체제의 종식에 즈음한 자전적 회상록의 장편 소설 「화두」를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현역 작가의 반열에 서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그의 문학적 특징은 흔히 ‘관념 작가’라는 말로 표상된다. 그의 관념은 현실과의 길항 속에서 끊임없는 점점의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망의 관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그의 관념의 불꽃이 일으키는 파장은 현실의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다.

현재 최인훈의 관념은 우리의 분단 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관념은 우리의 분단 현실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 규명을 둘러싼 존재와 사회, 역사, 문명 전반을 아우르는, 마치 종합철학의 포괄성에 상응하는 것 같은, 어떤 사색의 여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최인훈은 이런 관념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정신사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2. 작품세계 및 저항의식

최인훈은 1960년대. 즉, 전후 무렵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고, 그로인해 한국 문학사에서 ‘전후시대 최대의 작가’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의 문학은 남북 분단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직면하게 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소설을 통해 다루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이 대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인 작품을 주로 썼는데, 최인훈은 어느 한 쪽의 이데올로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 양쪽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나’와 타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되는 상황 그 자체를 비판했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그의 작품 「광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광장」에서는 이명준이 남한에서 아버지 때문에 이른바 ‘빨갱이’로 찍히고, 그로인해 이명준은 남한에서 온갖 고난을 겪게 된다. 이내 이명준은 남한의 부조리함에 환멸을 느끼고는 혁명에 대한 환상을 품고 북으로 향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그가 본 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내려지는 명령과 그에 따른 복종. 즉, 자유의 억압이었다. 결국 이명준은 북한에게서도 부조리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남과 북 그 어디도 아닌 제 3의 국가로 떠나는 배에 오르지만 그 조차도 부질없게 된다.

이처럼 최인훈의 작품에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와 분단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동안 ‘정신’을 우대하는 경향의 소설을 썼는데, 5.16 이후나, 특히 유신 상황은 당시에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곧바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는 것과 관련 되었습니다. 많은 학식인 지위가 있던 사람들조차 ‘밀실’에 불러 들어가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육체적 고문을 견디지 못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정신이 얼마나 강인한가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이데올로기를 다룬 ‘광장’과 마찬가지로 조봉암의 죽음을 말썽 없이 ‘서유기’에서 다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작가로서의 긍지를 느낍니다. -해체와 저항의 서사中 제 3부 대담->

탈식민, 탈형식, 탈이데올로기 -총독의 소리

72년 10월 유신으로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하고 민주주의가 실종되자, 최인훈은 73년 초만 해도 기세 좋게 일본군 장교(박정희도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다.)의 정치적, 인격적 심층 분석을 <태풍>에서 다루었지만, 이내 그는 분량상으로 보자면 더 많이 써야 했을 소설의 연재를 서둘러 종결짓고 미국으로 떠난다. 유신 전기에 그 정도로 고도의 입장에서 집권자를 비판한 소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후로 그는 3년 만에 간신히 <총독의 소리 4>를 발표하고, 또 3년 뒤에 짧은 소설 <전사에서>를 발표할 뿐 침묵을 지킨다.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쓴 그 두 편의 소설은 소설쓰기를 재개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썼던 것들을 간신히 마무리한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총독의 소리>는 풍자적으로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며 최인훈의 저항 의식을 나타냈다.

3. 대표작

작가 최인훈의 대표작으로는 학생들 누구나 알만한 작품인 ‘광장’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최인훈의 ‘광장’은 1960 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광장 없는 밀실에서의 상처를 안고 이명준은 단신 월북한다. 거기서 그는 개인의 밀실 없는 광장의 현실을 보게 된다. 개인적인 삶의 공간인 밀실은 아주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광장 또한 당의 독재 아래 타락해 있는 현실을 보고 그는 더더욱 상처를 받는다. 개인적 삶은 물론 사회적 삶도 당이 빼앗아버린 상태였던 것이다. 그 절망의 끝에서 상처를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만난다. 북에서 만난 애인 은혜에게서 그는 은총처럼 ‘광장-밀실’이 어우러진 희망의 새로운 지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폭격과 아비규환으로 얼룩진 전선의 한 동굴에서 은혜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때까지 그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유엔군의 폭격으로 은혜가 죽게 되자, 희망의 불씨는 꺼지고, 그 역시 지독한 상처로 남게 된다. 결국 이명준은 포로가 되고, 석방 무렵 남도 북도 거절한 채 제 3 국을 택한다. 어느 한쪽만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상황을 견뎌낼 수 없었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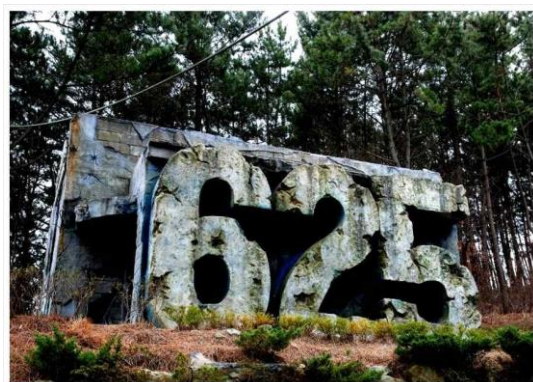
현실의 모순을 성찰하고 그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명준은 일단 수평적 공간 이동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일구어보고자 했던 인물이다. 광장을 없애고 밀실로 스며든 남쪽의 삶, 그러나 밀실마저 온전하지 못한 남쪽의 삶에 대한 혐오가 그로 하여금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했다. 하지만 개인의 밀실을 폐쇄한 채 집단적인 광장만을 강요하는 북쪽의 삶, 광장마저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북쪽의 삶에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는 갑자기 갈 길을 잃게 된다. 남이든 북이든 문제적인 주인공인 이명준에게 열린 길은 없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제 3 의 길을 택했지만, 그것은 추상일 뿐 현실일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당시 지구상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대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제 3 의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약관 20 대 중반의 철학도 출신 포로가 그 제 3 의 이데올로기를 당장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이명준은 이데올로기라는 암초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된 형국 이었던 셈이다. 이데올로기의 길은 닫혀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는가. 이 지점에서 작가 최인훈은 사랑의 길을 발견한다. 주인공 이명준이 그토록 소망하던 ‘광장-밀실’이 어우러진 삶의 소망스러운 지평을 은혜에게서 발견하는 장면에서 그것은 뚜렷하다. 결국 마지막에 이명준은 은혜와 딸의 상징인 갈매기가 있는 바다로 투신하며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

4. 관련 유적

-거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소설 ‘광장’의 배경과 관련된 유적지.

거제도는 한국전쟁당시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전쟁포로를 격리하거나 수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곳이었다. 거제포로수용소는 1951년 2월 거제도 신현읍 독봉산 아래 세워졌으며 그 규모는 포로 1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주택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들의 일부 잔해만 남아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물의 잔해 옆에는 1993년에 세워진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관이 있다. 이 유적관에는 한국전쟁 당시 수용소의 모습과 포로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유물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거제포로수용소는 현재 민족역사교육의 장소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김인호, 해체와 저항의 서사, 문학과지성사, 2004.
2. 우찬제, 한국문학의 고전, 문학과지성사, 2011.
3. 박종분 외 저, 한려수도과 제주도, 돌베개, 1998.

10 조-구지가

20071119 박영훈
20041188 홍원기
20121138 정희일
20121139 조아람
20121140 홍수민
20121143 박선우

구지가

龜 何 龜 何 (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首 其 現 也 (수기현야) 머리를 내어라
若 不 現 也 (약불현야) 내어 놓지 않으면
燔 灼 而 喫 也 (번작이깍야) 구워서 먹겠다

1. 역사적 측면에서 본 구지가의 배경

4 구체의 한역가 형태로 전해지는 <구지가>는 영신군가, 구지봉영신가라고도 불리는 왕을 맞이하는 무가적, 집단적, 주술적 노래로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의 강림신화의 삽입가로 대표된다. 작가가 누군지 제대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지만 <구지가>가 적혀있는 최초의 작품이 일연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는 가락국의 신화에 나오는 수로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락국의 수로신화인 가락국기를 살펴보면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추장국가로서 기틀을 잡은 이들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왕으로 섬기어 나라를 건국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다할 인재들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중, 북쪽 구지(김해 구지봉)에서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한줌의 흙을 파고, 노래와 함께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하였다. 사람들이 그리하자 자주색 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다르니 여섯 개의 황금 알 안에 사람이 있더라. 그 아이 중 비범한 사람이 보름 만에 왕위에 오르니 그를 처음 나타났다고하여 수로(首虜)라 하였다.’

김수로가 9 촌을 통일하여 건국했다는 가락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유는 사료들이 너무나 부족한 탓이다. 따라서 가락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비슷한 시대에 건국된 이웃국가 서라벌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고 남은 하나는 바로 이 <구지가>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지가>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될 수 있다.

가락국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주 집단을 이끌고 내려온 준왕, 십제를 세운 온조 집단, 서라벌을 세운 혁거세 집단 등등 남쪽으로 온 이주민들이 많았다고 추측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지방에 위치해있던 가락 9 촌엔 정치적인 변동이 왔을 거라고 짐작된다. 이는 황금 알의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김수로가 다른 가락 9 촌들과 혈통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로와 함께 있던 5개의 알들은 사실 그와 비슷한 위치와 가락 9촌의 주민보다 뛰어난 문명을 가졌다고 보인다. 이러한 부족들의 추천으로 혈통이 다른 김수로가 가락 9촌을 통합시키고 가락국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신화와 <구지가>로 알아본 역사적인 사실들은 <구지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우두머리, 장수라는 뜻과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북을 노래로 불러 황금 알의 형태로 내려온 김수로를 신격화 시켜 왕의 정당성을 입증시키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2. 구지가에 대한 4가지 해석

구지가는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나 그중 가장 대표되는 4가지 설을 소개해 보겠다.

①영신군가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 전하는 노래로 김수로왕의 강림신화 속에 삽입된 무가적 서사시로 수로왕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맞이하는 노래로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요구와 위협의 구조는 전형적인 주술 노래의 형태이고 작품 성격상 서정시보다 훨씬 이전부터 불린 서사시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용의 핵심인 ‘머리를 내놓아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즉 수로왕의 탄생을 나타낸다. 또한 ‘머리(우두머리)를 내어놓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랫말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거북에게 위협하여 수로왕을 얻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지가는 신령스러운 동물을 위협하면 자신의 뜻이 하늘에 전해진다고 믿었던 원시 사람들이 왕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강하게 표현하며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겠다고 위협한 노래라는 해석이다.

②다산 기원과 성욕 표현

정병욱 교수는 <한국고전시가론>에서 구지가를 원시인들의 성욕이 드러난 노래로 해석했다.

거북은 예로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으며 그 중에서도 ‘목’이라 함은 생명의 상징이다. 따라서 거북의 목을 내놓으라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내어달라는, 다산을 기원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거북의 목은 외형적으로도 남근과 유사하다. 또한 거북의 목을 구워먹겠다는 대목에서 번작(燔炸)의 ‘불’에 대한 이미지는 원시인들의 욕정이 깃든 여자의 성기의 은유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 따라서 구지가의 제작 계기는 원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그들의 강렬한 성욕을 표현하던 노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해석이 힘을 받는 근거로는 고대사회에서 다산(인구의 증가)은 노동력과 바로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③영신제 절차 중의 희생 무용

영신제(迎神祭)란 한 나라에 국한된 제사가 아니라 일명 ‘맞이굿’이라 하여 그 나라 국민이 따르는 신을 불러내어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뜻한다. 영신제의 중추가 되는 희생무용(犧牲舞蹈)이란 제단에서 특정 동물을 제물을 삼을 때 추는 무용으로, 집단 구성원의 안녕과 동식물의 증가를 기원하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구지가>란 가락국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이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것이다.

김열규 교수는 <가락국기고-원시 연극의 형태에 관련하여> 논문에서 박지홍 교수와 마찬가지로 구지가를 주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구(龜)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특별한 제의에서 제단에 바쳐지던 희생 동물의 이름을 따서 제의 공간의 이름을 지었던 사례가 있는데 구지봉을 그 근거로 삼아 거북을 제의의 희생 동물로, 구지가를 제의 절차에서 행해지던 희생 무용에서 가창된 노래로 해석한 것이다.

④잡귀 퇴치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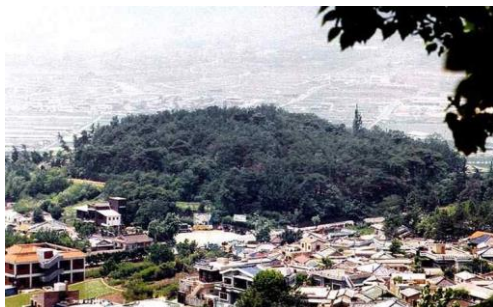
<가락국기>의 수로왕 신화에 한역되어 전하는 <구지가>는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주술적 노래로서는 가장 오래고 깊은 주술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의 하나이다.

그것은 잡귀를 쫓는다는 주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술적 대상(잡귀)을 불러내어(첫째 구), 명령하고(둘째 구), 듣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셋째 구), 위협하는(넷째 구)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으며 ‘호칭+명령-가정+위협’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박지홍 교수는 국어국문학 16 호 <구지가 연구> 통해 구(龜)를 신(神)으로 보아 ‘검’-귀신(사람에게 화(禍)와 복(福)을 내려 준다는 신령(神靈))이라고 해독하고 영남 지방 민요와 비교하면서 잡귀 퇴치 주문으로 해석했는데 영남 지방의 민요 거미 노래는 잡귀를 쫓는 주문으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진주 덕산 왕거미야/ 네 천용(天龍) 내 활랑/ 청용산에 청(靑바우)/ 미리국 미리국/ 두덩실두덩실 왕거미야

여기서 미리국은 용탕을 말한다. 거미 노래는 잡귀를 쫓는 주문이니 수기현야(首其現也) 약불현야(若不現也)는 이미 그 행동에 들어 있는 것으로, 천룡인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활로써 너를 쏘아 죽여 국을 끓여 먹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구지가와 굉장히 흡사하면 이를 근거로 구지가 또한 잡귀를 쫓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사적 제 429 호 김해 구지봉>

참고문헌

- 정병욱,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99.1.30.
장세현, <우리 문학 이야기>, 휴머니스트, 2011.4.30
이종욱, <한국사의 1 막 1 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04.04.26
윤영옥, <한국의 고시가> 문창사:서울, 1998